

한국사 교과서 속의 고대 목간 자료의 활용

B 교과서와의 를 중심으로

The use of ancient wooden tablets in Korean history textbooks - On the Comparison with Japanese history B textbooks -

저자 (Authors)	정선화 Jeong, Sun-hwa
출처 (Source)	목간과문자 21 , 2018.12, 249-285(37 pages)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21 , 2018.12, 249-285(3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목간학회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95967
APA Style	정선화 (2018). 한국사 교과서 속의 고대 목간 자료의 활용. 목간과문자, 21, 249-28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0:3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사』 교과서 속의 고대 목간 자료의 활용

-『日本史B』 교과서와의 對較를 중심으로-

정선화*

- I. 머리말
- II. 『日本史B』의 고대 목간 서술 현황과 특징
- III. 『한국사』의 고대 목간 서술 현황
- IV. 『한국사』의 고대 목간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2013 발행)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고대 목간의 서술 현황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3월 역사교육연구회를 통해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목간 관련 서술 내용을 검토한 글을 게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한국사』 교과서에 목간 관련 서술이 역사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를 적재적소에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비교 사례로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우리보다 빠른 시기인 1990년대부터 고대 목간 자료를 역사교과서에 수록하였다. 山川出版社, 東京書籍, 実教出版에 기재된 고대 목간은 「長屋王家」 관련 목간, 「郡・評論争」 관련 목간, 「天皇」 호 관련 목간 등 3종류로 대별된다. 『한국사』 교과서는 고대 목간이 수록된 6종의 교과서에 6종류의 고대 목간이 등장한다.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목간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목간의 기재 방식이나 목간의 선정 방식에서부터 상당한 차이를 있음을 발견하였다. 일본은 역사교과서를 통해 1차 자료로서의 목간의 가치를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서술한 반면,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단순한 소개차원이거나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에 반하는 서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목간 관련 서술은 1차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하면서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박사수료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면 측면에서 『한국사』 교과서 속의 고대 목간 관련 서술상의 특징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역사교과서, 『한국사』 교과서, 『日本史B』 교과서, 고대 목간, 1차 사료, 학습 자료, 목간 자료

I. 머리말

제7차 교육과정(교육과정 2000)에는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 확대와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과서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역사교과서에 학문적 성과 반영 여부를 비교 검토하는 연구 경향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교육과정 2000’의 영향이다.¹⁾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집필 기준에서는 역사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와 방향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의미 있는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²⁾ 이와 같이 최근 연구 성과의 역사교과서 수록을 권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역사교육계의 관심은 서술 내용 분석뿐만 아니라 학습 자료의 검토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문자만으로 전달하기 곤란하거나 과거 사실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할 때는 사진, 그림, 지도 등과 같은 비읽기 자료가 훨씬 효과적이다.³⁾ 고대 사회의 실상을 알려주는 사료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신출 자료의 출토는 역사학계뿐만이 아니라 역사교육계에서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출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木簡’은 고대의 사회상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사료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본고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처음 등장하는 고대 목간에 주목하여 서술상의 특징을 검토하려고 한다.

필자는 이보다 먼저 중학교 역사교과서 속 고대 목간 관련 서술 현황을 먼저 검토하였다.⁴⁾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분석하면서 목간 자료를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이에 논의의 시각을 좀 더 확대할 필요를 느껴 일본 역사교과서의 서술상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1960년대부터 목간이 출토되었고, 역사교과서에 고대 목간이 수록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이다. 출토된 목간의 양도 수십만 점에 달한다. 따라서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

1) 구경남, 2015, 「역사교과서 연구의 지속과 새로운 변화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22, p.117, p.121.

2)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p.1.

3) 역사교과서를 비롯한 역사교재에는 각종 학습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본문의 텍스트 외 학습 자료는 연구자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사진의 경우 시각 자료(이창호, 2017, 「기호학적 관점에 따른 역사 시각자료 읽기 모형 개발」, 『역사교육연구』 27, p.138), 삽화 자료(지모선, 2009, 「역사 교과서 제2차 세계대전 삽화 자료 비교 분석 -한·중·일·미·독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9, p.206)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 텍스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읽기 자료, 비문자 자료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필자는 본고의 검토 대상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목간 관련 자료를 넓은 의미의 ‘학습 자료’로 통칭하였으며(최상훈 외, 2007,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함께, pp.129-130), 경우에 따라서는 세부적으로는 ‘시각 자료’, ‘비읽기 자료’로 칭하기도 하였다.

4) 정선화, 2018, 「중학교 역사교과서 속 고대 목간 자료의 검토와 활용」, 『歷史教育』 145집.

교과서가 자신들의 목간 자료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한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에 기재된 우리 목간 자료의 서술 방식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의 진행 방향은 우선 II장에서 일본 고대 목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일본 역사교과서를 분석하려고 한다. 연구의 범위는 『日本史B』로 한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III장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의 목간 관련 서술 내용을 분석한 후 IV장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사』 교과서 속의 목간 관련 서술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日本史B』의 고대 목간 서술 현황과 특징

일본의 현행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선택 과목인 『日本史A』, 『日本史B』와 필수 과목인 『世界史A』, 『世界史B』로 나누어진다. 『日本史A』와 『世界史A』는 근대사와 현대사의 비중이 높다. 이와 달리 『日本史B』와 『世界史B』는 전체적으로 고대에서 현대까지 균형 있는 통사 형식을 띠고 있으며 주로 문과계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⁵⁾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대사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日本史B』를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일본의 목간은 도입 초기, 국가권력이 미치는 핵심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사용되었다.⁶⁾ 그 후 식자층의 증가로 목간의 출토 범위는 藤原宮, 平城宮 등의 도성과 福岡縣 大宰府 유적이거나 宮城縣 多賀城 유적 등의 지방 관아 등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672~694년까지 飛鳥淨御原宮 시기에 목간이 1만점 이상 출토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백제로부터 도래한 식자층의 증가도 그 이유일 것이다.⁷⁾ 일본의 경우 목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V자형의 홈이 있는 부찰 목간과 기록과 문서를 적은 문서 목간으로 나뉜다.⁸⁾ 율령국가 체제의 성립 이후 목간의 사용빈도는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목간의 제작 시기는 대략 8~9세기 것이 가장 많다.⁹⁾ 일본의 고대 목간 출토 점수는 1928년 三重縣 柚井 유적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최대 40만 점(목간 부스러기 포함)의 목간이 출토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⁰⁾ 이처럼 방대한 양의 목간이 역사교과서에 어떤식으로 수록되어 있는

5) 정선영 외, 2001, 앞의 책, pp.329-331; 임상선, 2002, 「일본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발해 관련 내용 연구」, 『사회과교육』 41(2), p.118.

6) 이경섭, 2016, 「6~7세기 한국 목간을 통해서 본 일본 목간문화의 기원」, 『신라사학보』 37, pp.49-50.

7) 市 大樹, 「飛鳥の木簡」, 中公新書, 2012, p.45.

8) 三上喜孝, 2008, 「일본 고대 목간의 계보: 한국 출토 목간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목간과 문자』 창간호, p.189; 그 외 기타 목간(습서 목간, 주술 및 의례 목간 등)을 포함해 기재 내용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김경호, 2011,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35; 市 大樹, 2012, 위의 책, pp.10-11). 이러한 분류는 한국 목간의 유도별 분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

9) 金慶浩, 2010,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목간 출토 및 연구 현황」, 『한국고대사연구』 59, p.349; 市 大樹, 위의 책, 2012, p.46.

지 검토하는 것은 한국 역사교과서의 서술 방향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선택한 『日本史B』는 채택률 순으로 상위 3곳이다.¹¹⁾ 『日本史B』는 출판사별로 볼 때 발행 연도와 검인정 연도에 상관없이 서술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다. 본장에서는 山川出版社를 포함하여 3곳의 고대 목간 관련 서술 현황과 특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山川出版社는 저자별로 A, B, C, D그룹으로 나뉜다. 이들 교과서에서 목간이 수록된 곳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표 1. 山川出版社 A, B, C, D그룹의 교과서 구성 특징

	교과서에서 목간이 수록된 곳
山川出版社A	교과서 도입부에 「長屋王家」 관련 목간 2점과 제1부 ‘원시·고대’ 속의 2장 ‘고대국가의 형성’의 3절 ‘율령국가로의 길’에 「郡·評論爭」 관련 목간 1점 수록
山川出版社B	교과서 도입부의 ‘자료를 읽다[資料をよむ]’의 ‘장옥왕의 변을 탐색하다[長屋王の変を探る]’ 등에 「長屋王家」 관련 목간 4점 수록
山川出版社C	제1부 ‘원시·고대’ 속의 2장 ‘고대국가의 형성’의 3절 ‘율령국가의 변영’의 교과서 본문 날개주에 「長屋王家」 관련 목간 1점
山川出版社D	교과서 본문 내의 학습자료실에 「長屋王家」 관련 목간 3점과 「郡·評論爭」 관련 목간 1점 수록

위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출판사라 하더라도 저자별로 교과서의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다.

10) 金慶浩, 2010, 앞의 논문, p.331.

현재 목간의 정의는 한·중·일 삼국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삭도(목간 부스러기)까지 포함하여 목간 점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목간 점수 계산법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80~90%가 삭설이라는 주장도 있다(市大樹, 앞의 책, 2012, p.8).

11) 본고의 분석은 입수 가능한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한정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기관 중 가장 많은 일본 역사교과서를 소장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의 『日本史B』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日本史B』는 高等高校 『日本史B』, 高校 『日本史B』, 新選 『日本史B』, 新 『日本史B』, 詳解 『日本史B』, 精選 『日本史B』, 最新 『日本史B』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일괄 『日本史B』(필요로 따라 일본 역사교과서)로 칭하였다. 일본의 교과서 채택률은 出版勞連의 『教科書レポート』를 통해 공개되므로 참고하였다(이 잡지는 해마다 발행되며 필자가 검토한 것은 확보 가능한 2010~2016 등 7 권이다). 가장 높은 채택률은 평균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山川出版社이다. 2, 3위는 東京書籍(2010~2012에는 3위, 2013~2016에는 2위)과 実教出版(2010~2012에는 2위, 2013~2016에는 3위)이 차지했으며 채택률은 각각 10%대이다. 4위에 링크된 출판사는 주로 清水書院과 明成社인데 채택률은 1%대이다. 검토 대상 일본 역사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에 나란히 병기된 연도는 각각 검인정 연도·발행 연도 순이다. 검인정 연도와 발행 연도는 다르지만 동일한 집필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알파벳으로 묶어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A그룹은 山川出版社의 大津透의 3명이 집필한 교과서 중 본고에서 검토한 7종의 교과서이다. 이 7종의 교과서 구성은 동일하며, 7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처음에만 ()안에 검인정 연도·발행 연도를 기입하였다. 이하 동일한 방법으로 표기하였다.

山川出版社: A(大津透 외 3인: 2003·2004/2003·2006/2007·2008/2007·2009/2007·2010/2013·2015/2013·2016), B(石井進 외 13인: 2002·2004/2004·2006/2006·2008/2006·2009/2006·2010), C(石井進 외 12인: 2007·2008/2007·2009/2010·2012), D(笹山英晴生 외 13인: 2012·2013/2012·2015/2012·2016/2013·2016), 東京書籍: E(尾藤正英 외 10인: 1998·1998),

A~D그룹의 공통점도 엮보이는데, 모두 「長屋王家」 관련 목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목간을 소개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A는 B~D그룹의 구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비해, B~D그룹은 A의 일부 구성만을 취하고 있다. 또 B와 C에는 「長屋王家」 관련 목간이 각각 4점, 1점이 수록되어 있고, D에는 「長屋王家」 관련 목간과 「郡・評論争」 관련 목간이 수록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A에 비해 간략하다. 山川出版社는 목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과서 속에 편재되어 있어 교과서 속에서 목간이라는 자료가 어떻게 서술되고 활용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山川出版社의 교과서는 『日本史B』 교과서 중에서도 채택률이 70%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중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山川出版社 B~D그룹의 교과서는 후술하는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들과 목간을 소개하는 방식이나 체제가 유사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山川出版社(2013·2015)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우선 山川出版社A의 목차를 살펴보자. <그림 1>의 목차에는 머리말[まえがき] 바로 다음, 대단원이 시작되기 전에 4개의 장이 등장한다. 이 장은 ‘역사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공간으로 한국의 경우에도 역사교과서의 의미로 소개하고 있다. 목간은 ‘역사

目次	
まえがき	2
歴史と資料 長屋王と歴史資料	6
歴史の解釈 絵画資料から考える	145
歴史の説明 田沼意次の歴史的な評価	196
歴史の論述 歴史の探究方法と表現活動	362
第1部 原始・古代	
	9

그림 1. 山川出版社A의 목차 중 일부

와 자료[歴史と資料]를 설명하는 ‘장옥왕과 역사 자료[長屋王と歴史資料]’라는 첫 번째 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역사에서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목간’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구성은 학습자들에게 역사는 사료를 근거로 기술되며, 그것을 설명하는데 목간이 좋은 예로서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표 2-1>은 첫 번째 장인 ‘장옥왕과 역사 자료[長屋王と歴史資料]’ 중 목간 관련 부분만을 따로 인용하여 소개한 것이다.¹²⁾ 우선 첫 번째로 長屋王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목간이 출토된 유적지와 목간에 적힌 문자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長屋王의 저택 주변에서는 한 번에 수만 점에 이르는 목간이 출토되어 長屋王家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다.¹³⁾

F(尾藤正英 외 6인: 2003·2005/2003·2006/2003·2007/2003·2008/2003·2009/2003·2010/2003·2012), G(小風秀雅 외 9인: 2013·2015/2013·2016), H(山本博文 외 11인: 2003·2005/2003·2008/2003·2009/2003·2010/2003·2012), 実教出版: I(直木孝次郎 11인: 1997·1998/1997·2001/1997·2003), (脇田修 외 13인: 2003·2004/2003·2006/2007·2012), (脇田修 외 15인: 2013·2015/2013·2016), J(宮原武夫 외 15명: 2003·2007/宮原武夫 외 16명: 2007·2010/宮原武夫 외 11인: 1998·2001), K(君島和彦 외 15인, 2013·2015/2013·2016) 총 47권이다.

12) 이하 본고에서 인용한 일본 교과서의 본문 및 캡션 등의 내용 번역은 필자가 직접 한 것이다.

13) 장옥왕가 출토 목간은 연구자마다 출토 수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저 3만 점에서 5만 점까지 다양하다. 여신호는

「長屋王家」관련 목간 중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표 2-1>의 첫 번째 목간인 「長屋親王宮鮑大贊十編」이 기재된 목간으로 「親王」, 「大贊」 등의 용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¹⁴⁾ 이 목간에서는 長屋王을 「親王」이라고 표현하고 있다.¹⁵⁾ 본래는 천황의 아들을 親王이라고 부른다. 천황의 손자는 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長屋王은 법률상 親王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¹⁶⁾ 또한 「大贊」의 贊은 신에게 바치는 헌물이나 천황에게 올리는 특산물이다. 長屋王이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천황에게 바치지는 식료품이 長屋王에게 전송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¹⁷⁾ 이 두 용어는 <표 2-1>의 교과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長屋王의 당시 권세와 관련이 깊은 용어로서 당시 長屋王이 천황의 손자로서 강력한 황위계승자였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표 2-1>의 두 번째 목간은 궁정의 아악을 담당하는 아악료에서 장옥왕가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 기관으로 보낸 문서 목간이다. 장옥왕가에는 궁정에서 직접 倭舞에 능통한 자를 요청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가를 고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궁정의 아악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의뢰할 만큼 장옥왕의 높은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¹⁹⁾ 이 목간은 출토지가 長屋王의 저택임을 나타내는 근거를 제공

수만 점이라고 하거나 자료에 따라 3~5만 점이라고 하였다(余信鎬, 2006, 「木簡이 말하는 고대사: 일본의 木簡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13 p.57, p.63).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에서는 4만 점 이상이라고 하였다(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編, 1991, 『長屋王邸宅と木簡』, 吉川弘文館, p.76). 이 외에 3만5천 점으로 추정된 곳도 있다(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한국의 고대목간』, p.401; 八木 充, 『日本古代出土木簡の研究』, 塙書房刊, 2009, p.117; 木簡學會編, 『木簡から古代がみえる』, 岩波書店(株), 2010, pp.47-48;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編, 『長屋王家・二條大路木簡を讀む』,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學報 第61冊, 研究論集XII, 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p.5).

- 14) 森 公章, 『長屋王家木簡の基礎的研究』, 吉川弘文館, 2000, p.16;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編, 『長屋王邸宅と木簡』, 吉川弘文館, 1991, p.19.
- 15) 親王은 천황의 아들이나 형제의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천황의 호칭은 남녀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여자를 남자와 구별해서 특별히 내친왕이라고도 한다(国史大辭典編集委員會編, 『国史大辭典』 7, 吉川弘文館, 昭和 61年, p.905; 平野邦雄, 『木簡が語る古代史(上)』, 吉川弘文館, 2001, p.198). 內親王은 皇女에게 부여되는 칭호이다. 吉備內親王은 長屋王의 妃다. 永高親王은 일본 제44대 元正천황으로 吉備內親王의 친언니이자 42대 文武천황의 친누나다. 永高親王 관련 목간이 1점 출토되었다(永高親王宮春稅五斗). 이 목간에 관해서는 長屋王家가 거주하기 전에 永高親王이 거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森 公章, 앞의 책, 2000, pp.107-112). 長屋王의 호칭은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목간에 기재된 호칭 외에도 「長屋王」, 「長屋王子」, 「長屋皇子宮王」, 「長屋皇宮」, 「長屋親皇宮」 등이 있다(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編, 『長屋王邸宅と木簡』, 吉川弘文館, 1991, pp.110-111).
- 16) 이에 관해 장옥왕을 親王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상하지만 당시의 일본어 표기법의 문제로 접근해서 생각한다면 장옥왕은 「나가야노미코」라고 일컬어지고 여기에서의 親王은 「미코」의 표기법으로 사용되어 법적으로는 천황의 아들은 아니지만 형제로 본다. 엄밀한 의미로의 親王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大庭 脩, 『木簡—古代からのメッセ—』, 大脩館書店, 1998, pp.208-209).
- 17) 平野邦雄, 위의 책, 2001, pp.157-158.
- 18) 東野治之는 장옥왕을 「親王」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 생각하였다. 왕 자신을 포함해 친왕과 왕의 구별을 그다지 엄격하게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천황의 음식을 의미하는 大贊에 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였다. 천황의 경우 畿內지방에 贄를 공진하는 특별한 어민집단(雜供戸)이 지정되어 있는데 장옥왕가에도 유사한 어민의 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東野治之, 『木簡が語る日本の古代』, 岩波書店(株), 1997, pp.157-158; 佐藤 信, 『古代の遺跡と文字資料』, 名著刊行會, 1999, pp.277-278).

표 2-1. 山川出版社A '長屋王과 역사 자료[長屋王と歴史資料]'

7쪽 본문 일부	번역
<p>1987(昭和62)年に井戸跡でみつかった木簡に「長屋皇宮俵一石……」の文字が読めた。さらに翌年、本格的なデパート建設が進むかわらで、発掘をあきらめた地区からたくさんの木簡が見つかり、1週間だけの緊急調査をおこない、かろうじて3万点にもおよぶ木簡を取りあげた。その中には、右上写真の「長屋親王宮鮑大費十編」という木簡があった。他にも「吉備内親王」や「永高親王(吉備内親王の跡で、のちの元正天皇)の名前も木簡にみえた。</p>  <p>長屋王家木簡(長さ21.7cm,奈良文化財研究所蔵)</p>	<p>1987년(소화62)에 井戸유적에서 발견된 목간에 「長屋皇宮俵一石…」라는 문자가 적혀 있었다. 게다가 다음해에는 본격적인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어 발굴을 단념한 지역에서 많은 목간이 발견되고 일주일간 긴급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3만여 점의 목간이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 「長屋親王宮鮑大費十編」의 문자가 적힌 목간이 있었다. 이밖에도 「吉備内親王」, 「永高親王(吉備内親王의 손윗누이로 후에 元正天皇)의 이름도 보인다.</p>
<p>さらに、次の木簡を読んでみよう。 (表)雅楽寮移す長屋王家令所 平群朝臣広足 右の人を請ふ、倭舞に因る (裏)故に移す。十二月廿四日 少属白鳥史豊麻呂 少允船連豊</p> <p>これは、宮廷の音楽を担当する雅楽寮から長屋王家の家政機関にあてた文書(「移」とは上下関係のない官司間の文書)で、長屋王家お抱えの倭舞の名手である平群広足を貸してほしいという内容である。雅楽寮の少允(三等官)と少属(四等官)が署名しているので正式の文書である。紙は貴重であり、 役所間の日常的やりとりは木簡が使われていたのだろう。この雅楽寮は平城宮内にあったから、木簡が出土した遺構が、文書の宛先である長屋王家家令所であり、そこで用がすんで捨てられたと考えられる。</p>  <p>長屋王家木簡(長さ22cm,奈良文化財研究所蔵)</p> <p>歴史と資料 7</p>	<p>다음 목간을 읽어보자 <表>아악료에서 문서를 보낸다. 장옥왕가 소속 평군조신광족, 이 사람을 청한다. 倭舞에 능통하기 때문이다. <裏> 이에 문서를 보낸다. 12월 24일 少屬 白鳥史豊麻呂, 少允 船連豊</p> <p>이것은 궁정의 음악을 담당하는 아악관에서부터 長屋王 집안의 가정기관 앞으로 보낸 문서로 長屋王 집안에서 고용한 倭舞의 명수인 平群廣足를 초대하고 싶다고 말하는 내용으로 담당 관리인 少允(삼등관)·少屬(사등관)이 서명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문서이다. 종이는 귀중하기 때문에 관청 간의 일상적인 왕래는 목간이 사용된 것이다. 아악 관리는 平城宮 궁내에 있었기 때문에 목간이 출토된 유구가 문서의 수신처인 長屋王 집안 소속의 가정 기관이고 거기서 사용된 후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p>

해 주기 때문에 <표 2-1>의 첫 번째 목간과 함께 매우 의미있는 목간이다.²⁰⁾

장옥왕가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 하위 기관이 존재했다는 것을 출토된 목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목간 설명에 이어 馬司, 犬司 등 장옥왕가 내에 있는 각종 가정기관과 기술자에 관한 사

19) 渡辺晃宏, 『坪城京と木簡の世紀』, 講談社, 2001, pp.114-116.

20) 渡辺晃宏, 위의 책, 2001, p.115.

실, 또 각 영지에서 재배된 다양한 산물이 장옥왕가로 공진되고 있었던 사실 등이 목간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문헌 자료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귀중한 정보이다.

실제 위 교과서에서도 “이처럼 목간은 『續日本紀』 등의 문헌 자료에서는 알 수 없는 귀족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이 명확히 밝혀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그러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목간을 비롯한 1차 사료는 문헌 자료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山川出版社는 「長屋王家」 관련 목간을 그러한 맥락에서 매우 효용성 있는 1차 사료로 소개한 셈이다.

한편 山川出版社A의 이 장에는 <표 2-2>를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長屋王家」 관련 목간과는 성격이 다른 「郡·評論爭」 관련 목간도 소개하고 있다. 「郡·評論爭」은 고대 일본 행정 단위 명칭의 변화 시점에 관한 역사적 논쟁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評’이 ‘郡’으로 언제부터 변화되었는가에 관한 논의가 전부터 있어 왔다. 646년에 반포된 「大化改新」 제2조에는 지방 행정 조직을 일체 ‘郡’이라 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646년 이후에도 ‘郡’이 아니라 ‘評’이라고 적혀 있는 목간과 금석문 등의 사료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났다.²¹⁾

1966년에 국도 165호 가시하라 우회도로를 藤原宮 북쪽으로 통과시키려는 계획이 수립된 후 발굴 조사과정에서 약 2,000점의 목간이 출토되었다. 이때 출토된 목간 중 가장 큰 파장을 가져온 것은 己亥年(699)에 ‘評’자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己亥年十月上挾國阿波評松里」 목간이었다.²²⁾ 이후 藤原宮 유적을 중심으로 7세기 대의 목간이 다수 출토되면서 다이카 개신의 일부 부정론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표 2>의 맨 아래쪽을 보면 고대사의 논쟁을 종식시킨 목간이 있다고 소개한 다음 보다 자세하게 699년까지 ‘評’이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己亥年十月上挾國阿波評松里」 목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목간이 출토되기 전에는 이러한 논쟁을 해결할 결정적인 방법이 없었다.²³⁾ 이처럼 山川出版社A는 도입부에서 역사 자료의 중요성을 목간을 통해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목간에 적힌 글자가 당시의 역사를 복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목간 사진과 함께 판독문을 수록하고 출처를 제시하였다.

한편 山川出版社A는 「郡·評論爭」 관련 목간을 본문 속에서도 소개하고 있다. 제1부 ‘원시·고대’편의 2장 ‘고대국가의 형성’ 중, 3절 ‘율령국가로의 길’에 편재되어 있다.

<표 3> 38쪽의 본문은 다이카 개신 조를 설명하고 있고, 그 아래쪽 목간에 적힌 캡션 내용은 본문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이 『日本書紀』에 기록된 개신 조의 오류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日本書紀』의 해당 내용과 관련 목간을 모두 배치하고 있다. 즉, 38쪽 하단에 「庚子年四月 若狹國小丹生評木ツ里秦人申二斗」 목간을 통해 庚子年은 700년이므로 대보율령(701년) 바로 직전까지 ‘郡’이 아니라 ‘評’

21) 646년 이후 제작된 목간 중 ‘評’이 적힌 목간에는 일본 奈良文化財研究所 데이터베이스의 목간자전 번호 721호인 「丁丑年十二月三野國刀支評次米」 목간, 193호인 「丁丑年十二月次米三野國／加爾評久々利五十戸人」 등이 있다. 이 목간에서 말하는 丁丑年은 677년이다. 「尾治國 知多郡×, 「大宝二年 이 목간에 의하면 대보 2년(702)에 郡이 등장한다. 따라서 評制에서 郡制로의 전환은 大宝律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2) 市 大樹, 앞의 책, 2012, pp.49-50.

23) 平野邦雄, 앞의 책, 2001, p.107; 平野邦雄, 『木簡が語る古代史(下)』, 吉川弘文館, 2001, pp.9-10.

표 2-2. 山川出版社A '장옥왕과 역사 자료[長屋王と歴史資料]'

8쪽 본문 일부	번역
<p>邸内には、家令(家政機関の長官)が率いる家政事務所のほか、厩舎や食料を管理する部門、工人などの技術者、馬司・犬司などが存在したことが他の木簡からわかる。鶴も飼われていた。また、諸国から山海の珍味が貢上されていたほか、御田・御園と呼ばれる田や菜園が畿内各地に散在し、そこから米や野菜が運ばれていた。水室からは水が毎日届けられ、牛乳や「かすずけの瓜」が食べられていたこともわかる。このように、木簡によって、国家により編纂された正史である『続日本紀』などの文献資料からはうかがい知れない、当時の貴族の具体的な日常生活がわかるのである。</p> <p>「長屋皇宮」「長屋親王」などの文字がみえ、制度上の長屋王(天皇の孫である)と違う表記がなされた事実がわかった。たとえば、それが私的な呼称であったとしても、長屋王が親王(天皇の子)に待遇されたり、皇族中で特別な位置を占めていたことをうかがわせ、それが長屋王の妻の背景にあったこともわかってきた。</p>	<p>저택 안에는 家令(가정 기구의 관장)이 통솔하는 가정 사무를 보는 곳 외에도 전당과 식료를 관리하는 부서, 공인 등의 기술자, 馬司, 犬司 등이 존재하였음을 다른 목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학도 길렀다. 또한 제국으로부터 산해의 진미가 바쳐진 것 외에도 황실용 식재료를 재배했던 전답, 정원이라 불리는 땅과 수도 부근에 흩어져 있는 영지로부터 쌀, 채소가 운반되었다. 얼음 창고에서는 얼음이 매일 만들어지고 우유와 「절인 생선과 오이」를 먹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목간에 의하면 국가에 의해 편찬된 정사인 『續日本紀』 등의 문헌 자료에서는 알 수 없는 당시의 귀족의 구체적인 일상 생활이 명확히 밝혀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長屋皇宮」, 「長屋親王」 등의 문자에서 제도상의 長屋王(천황의 손자이다)과 다르게 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사적인 호칭이라 하더라도 長屋王을 親王(천황의 아들)으로 대우하거나 황족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長屋王의 변의 배경이었던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p>
<p>木簡が、古代史の論争を決着させたこともある。藤原宮跡で出土する地方からの貢進物につけられた付札木簡をみると、 己亥年十月上狹国阿波評松里 とあり、己亥(699)年には阿波評(のちの安房郡)と「評」の字がみえる。一方で、大宝3(703)年と考えられる木簡には「郡」の字がみえ、大宝令以前には国の下には評が置かれ、大宝令の施行によって郡とな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日本書紀』に記す大化2(646)年に出された大化改新詔には「郡」を置くことあるが、『日本書紀』はのちの8世紀になって編纂された史書であり、8世紀の法律によって「郡」に書き直され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日本書紀』の大化改新詔はもとの史料を伝えているのかという論争(郡評論争)に決着がついたのである。しかし同時に、全国に「評」が設置されたことも確実になり、木簡により、『日本書紀』の描く大化改新の像とは違う、改革の実態に近づく方法も生まれてきたのである。</p>	<p>목간이 고대사의 논쟁을 종식시킨 일도 있다. 藤原宮 유적에서 출토된 지방으로부터의 공진물에 부착한 부찰 목간을 보면, 「己亥年十月上狹国阿波評松里」라고 하고 기해(699)년에는 阿波評(후에 安房郡)이라는 「評」의 글자가 보인다. 대보율령 이전에는 国 아래에는 評을 두었고, 대보율령의 시행에 의해서 郡이 된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日本書紀』에 대화2(646)년에 반포된 대화 개신조에는 「郡」을 설치하였다지만 『日本書紀』는 그 후 8세기가 되어 편찬된 사서여서, 8세기의 법률에 의해서 「郡」이라고 쓴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日本書紀』의 대화개신조는 원사료를 그대로 전하는 것 인가하는 논쟁(郡評論争)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p> <p>그러나 동시에 전국에 「評」이 설치된 것도 확실하게 되고 목간에 의해 『日本書紀』에 나타나 있는 대화개신의 모습과는 다른, 개혁의 실태에 접근하는 방법도 생겨났다.</p>

표 3. 山川出版社A 제부, 2장, 3절 '율령국가로의 길'

38쪽 본문 일부	번역
<p>翌646(大化2)年の正月には改新の詔を発して、(1)皇族や豪族がおのおのに人民・土地を支配する体制をやめて、公地公民の原則を示し、豪族には食封を支給する、(2)京・畿内・国・郡などの地方行政区画を定める、(3)戸籍・計帳・班田取授法をおこなう、(4)田の調、仕丁・采女の庸などの統一的な税制を施行することなど、改革の大綱を提示した。</p> <p>『日本書紀』に記された改新の詔は、のちの令の文章によって修飾された部分もあり、(3)の戸籍や班田取授法のように、この時施行されたことが疑問視される部分もある。しかし、難波宮の造営は発掘により確認され、冠位制や新たな中国風の官職が定められ、地方では全国に評(改新の詔では郡と書き改めている)が設置され、国造やその一族が評の役人に任命された。こうした孝徳天皇の時の一連の改革を、大化改新という。</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藤原宮跡出土木簡 庚子年は700年、大化改新で評がおかれ、大宝令で郡に改められた。(奈良文化財研究所蔵)</p>	<p>다음 646(대화2)년 정월에 개신의 조를 발하고 (1)황족과 호족이 제각각의 인민·토지를 지배한 체제를 중지하고, 공지공민의 원칙을 제시하고, 호족에게는 식봉을 지급한다. (2)京·畿内·国·郡 등의 지방 행정 구획을 정한다. (3)호적·계장·반전수수법을 시행한다. (4)농지의 調·仕丁·采女の庸 등의 통일적인 세제를 시행하는 것 등의 개혁 대강을 제시하였다. 『日本書紀』에 기록된 개신의 조는 훗날 승에 의해 문장이 수식된 부분도 있고, (3)의 호적과 반전수수법과 같이 당시 시행되었다고 하기에는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난파궁의 조영은 발굴에 의해 확인되고, 관위제와 새로운 중국풍의 관직이 정해져 지방에서는 전국에 評(개신의 조에서는 郡이라고 고쳐 기록하고 있다)이 설치되고, 국조와 그 일족이 評의 역인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고토쿠[孝徳]천황 대의 일련의 개혁을 대화개신이라고 한다.</p> <p>-경자년 4월 약협국의 소단생평목쓰리진인신 2斗²⁴⁾ -藤原宮 출토 목간</p> <p>경자년은 700년, 대화개신 때 評이라고 하고 大宝令 때 郡으로 변경하였다(나라문화재연구소장).</p>

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山川出版社A는 두 가지 형식, 즉 하나는 교과서 도입부에서, 다른 하나는 본문에서 목간 자료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역사의 의미를 다루는 교과서의 도입부에서 특별히 목간 자료를 이용해 역사가가 다루는 1차 사료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교과서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1차 사료가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역사가가 어떤 작업을 통해 역사를 복원하는지 그 전반적인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였다. 목간은 문헌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고대사회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복원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문헌 자료의


24) 이 목간은 일본 목간학회의 도록에 세목과 품목은 없지만 약협국의 하갈 목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木簡学会 編, 『日本古代木簡選』, 岩波書店, 1990, pp.100-101).

오류까지 시정하는 1차 사료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상세히 알려주기 위해 본문에도 다시 한 번 목간 사진을 배치하여 강조하였다.

이제부터는 山川出版社 외 나머지 다른 2곳의 출판사에서 간행한 교과서에는 목간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들 교과서 역시 「長屋王家」 관련 목간이나 「郡・評論争」 관련 목간을 다루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내용 설명들은 생략하고, 목간을 소개하는 형식이나 교과서 구성에서 특히 山川出版社A와 차이 나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

우선 東京書籍은 검토한 4그룹(E·F·G·H) 중에서 H를 제외한 3곳은 ‘역사를 탐색하다’라는 특별 탐구활동 코너를 통해 목간을 소개하고 있다. 이 특별 코너에 목간을 소개하는 방식은 山川出版社A에는 보이지 않는 형식이다. H는 ‘원시·고대’편, ‘고대국가의 형성과 고대문화’ 중, 제3장 ‘고대국가의 성립’의 2절 ‘율령국가의 성립’의 본문에 2점의 하찰 목간이 소개되어 있으며 서술 내용은 간략하다. E·F·G는 ‘나라시대의 정치와 천평문화’(E·F), ‘평성경과 천평문화’(G)를 다루는 절 속에 각각 특별 코너를 설정하고 거기에 목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 「長屋王家」와 관련해 다양한 목간이 기재되어 있는 東京書籍 E(1998·1998)를 아래에 소개하였다.

표 4. 東京書籍E의 ‘역사를 탐색하다’

43쪽 본문 일부	번역
 <p>大量に出土した木簡によって、各地から運び込まれた食料を知ることができる。米・麦・クルミ・かぶ・ふきのなどの農産物、かつお・たい・あゆ・あわび・みる・塩などの海産物と、その種類は豊富であった。王家直営の農園もあった。また、氷室(天然の水の貯蔵庫)を所有しており、夏には水を運ばせている。牛乳もおそらく蘇(乳製品)をつくる原料などとして、もちこまれていた。</p> <p>こうした木簡のほか、筒も大量に出土しており、王家では、事務全般に木簡や紙の文書などが大量に利用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p>	<p>대량으로 출토된 목간에 의해 각지에서 운송된 식료품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쌀·보리·호두·순무·머위 등의 농산물, 가다랑어·도미·은어·전복·청각채·소금 등의 해산물과, 그 종류는 풍부하였다. 왕가 직영의 농원도 있었다. 또, 氷室(자연수 저장고)를 소유하고, 여름에는 얼음을 나르게 하였다. 우유도 연유(유제품)를 만드는 원료 등으로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목간 외에 벼루도 대량으로 출토되고 왕가에서는 사무 전반에 목간과 종이 문서 등이 대량으로 이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p>

위 <표 4> 東京書籍E의 특별 코너는 중단원 ‘율령국가의 형성과 고대문화의 전개’ 속의 소단원인 ‘나라시대의 정치와 천평문화’가 끝나는 곳에 편재되어 있다. 나라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지로서 장옥왕가를 예로 들어 ‘나라시대의 귀족의 생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왕가 규모와 주변 모습, 왕가 내부의 여러 가정 기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표 4>에는 장옥왕가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4점의 목간이 등장한다. 넘버링 되어 있는 순서대로 좌측부터 목간①은 장옥친왕궁에 공납물(大贄)인 전복을 헌납한 하찰 목간이고 목간②는 耳梨山 근처 직영 농원사무소(御田司)에서 진상된 야채의 하찰 목간, 목간③은 우

유를 달여서 치즈 등을 만든 사람에게 쌀을 지급한 전표, 목간④는 말 사육기관(馬司)에 쌀을 지급한 전표이다.²⁵⁾ 東京書籍E의 「長屋王家」 관련 목간의 서술은 앞서 검토한 山川出版社의 서술 내용은 대동소이하다.²⁶⁾ 하지만 다양한 목간을 소개하여 장옥왕가의 생활상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끝으로 實教出版(I·J·K)에 수록되어 있는 고대 목간의 서술 현황을 검토하려고 한다. 實教出版에서는 총 11종의 역사교과서에 3종의 목간이 등장한다. 하나는 「郡·評論爭」 관련 목간이다. 이에 해당하는 목간은 「己亥年十月上掾國阿波評松里」 목간이다. 두 번째는 지방관청의 유적에서 관청의 장부와 調庸의 수송에 관한 하찰 목간이다. 마지막은 일본의 군주 호와 관련된 「天皇聚口弘……」가 목서된 목간이다.²⁷⁾ 「天皇」 호 관련 목간은 實教出版에만 수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郡·評論爭」 관련 목간의 서술은 앞서 분석한 세 곳의 출판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天皇」 호 관련 목간에 관해서만 살펴보고 싶다.

實教出版L(2013·2015)의 본문 제1편 ‘원시와 고대’, 제2장 ‘고대국가의 확립’, 3절 ‘율령의 성립과 백봉문화’의 32쪽과 50쪽에 각각 「天皇」 호 목간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32쪽은 ‘역사의 창: 신이 된 천황’이라는 소단원의 도입부가 있는데, 그 설명을 보완하는 날개주에 천황 호 목간 사진과 캡션이 실려 있다. 이 캡션 마지막 하단의 50쪽에 더욱 자세한 내용의 특집 코너가 있음을 알리는 지시 표시를 해두었다. 50쪽은 중단원이 끝나는 곳으로 ‘ズームイン’이라는 특집 코너에 「천황」 호의 성립이 서술되어 있고, 그 속에 ‘천황’ 호 목간의 출토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표 5〉는 50쪽의 「天皇聚口弘……」 목간과 직접 관련된 서술 부분이다. 일본에서 “왕호가 ‘大王’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 ‘天皇’이라는 칭호로 또 국호를 ‘倭’에서 ‘日本’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²⁸⁾ 일본 학계에서는 이 목간을 ‘천황’이라는 칭호를 기재한 가장 오래된 사례로 뽑고 있다. 〈표 5〉의 주된 내용은 제목(「天皇」 호의 성립)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천황’ 호 사용의 채용 시기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천황’이라는 군주 호의 사용 시기에 관해 이견이 있다.²⁹⁾ 實教出版L에서

25) 목간의 분류법은 목간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 간에도 통일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윤선태는 문서 목간을 다시 수발 문서 목간, 장부 목간, 기록간으로 나누는데 전표는 기록간에 포함이 시켰다(윤선태,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pp.88-89).

26) 본고에서 필자가 말하는 ‘같은 맥락의 서술’이라는 것은 史實에 관한 객관적인 해석에 한하여 언급한 것이다.

27) 이 목간과 함께 출토된 목간 중에 「丁丑年十二月三野国刀支評次米·惠奈五十戸造○阿利麻\春人服部枚布五斗倭」가 목서된 목간(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데이터베이스, 목간번호 721호)이 있다. ‘천황’ 호 목간의 정확한 제작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함께 출토된 공반 유물 등의 정보를 통해 이 목간(목간번호 721호)에 목서된 정축년이 677년이라는 것에는 일본 학계에서 이견이 없다. 따라서 일본에서 ‘천황’ 호의 사용은 적어도 677년에는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28) 전통시대 일본의 천황은 현실 정치에서 국가를 대표할 만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동북아역사재단, 오야마 세이이치 지음(연민수·서각수 옮김), 2012, 『일본서기와 ‘천황제’의 창출 -후지와라노 후히토의 구상-』, 동북아역사재단 번역총서32, pp.8-13).

29) 송완범은 일본의 천황 호칭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인 推古조설과 7세기 말인 天武·特統조의 시기가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후자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았다(송완범, 2011, 『민의 대척점에 선 「王權」의 표상: 「天皇」과 「征夷大將軍」』, 日本史學 20, p.78): ‘천황’으로 구분된 시기에 관해서는 推古기로 생각한 설이 강하였으나 法隆寺金堂釋迦三尊像光背銘, 天

實敎出版L 50쪽 본문	번역
<p style="text-align: center;">ズーム인 「天皇」号の成立</p> <p>「天皇」号の起源 「日本国憲法」で、日本および日本国民の象徴と規定される「天皇」という呼称は、いつごろ、どのようにして成立したのだろうか。</p> <p>そもそも「天皇」という称号は、日本で生まれたものではなかった。中国では、道敎思想(老子を敎祖とし、不老長生を求め、また現世利益のまじないをおこなう中国の伝統的信仰)にもとづいて、北極星を「天皇大帝」とよびならわした。</p> <p>中国唐の第3代皇帝であった高宗はあつく道敎を信仰し、皇帝という称号にかわって、一時期、「天皇」号を用いた。</p> <p>「天皇」号木簡の出土 一方、近年、飛鳥池遺跡(奈良県明日香村)から「天皇聚口弘寅口」という木簡が発見され、そこに「天皇」という文字があった。作製年代は、いっしょに出土した木簡の年号から、天武朝のはじめごろ(7世紀後半)と考えられる。</p> <p>律令国家は、天武天皇のころ、外交の場で使用するために、古くから使用されてきた「大王」という称号をやめ、中国皇帝の称号をまねて、「天皇」号を採用した。その後、この称号は、飛鳥浄御原令をはじめて規定されたと推測される。</p> <p>702(大宝2)年には、30数年ぶりに遣唐使が派遣された。彼らは国号を「倭国」から「日本」へ、そして君主号を「大王」から「天皇」へかえたことをたずさえて唐に渡り、倭国が唐の制度になった国になった証として、外交の場ではじめてそれらを使用したと推測されている。</p>	<p>「天皇」호의 성립</p> <p>▷「天皇」호의 기원- 「日本国憲法」에서 일본 및 일본국민의 상징이라고 규정된 「天皇」이라고 하는 호칭은 언제쯤 어떻게 해서 성립되었던 것일까?</p> <p>애초 「天皇」이라고 하는 칭호는 일본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중국에서는 도교 사상(老子를 교조로 하고 불로장생을 구하며, 또 현세이익을 주문을 구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신앙)에 이 입각해서 북극성을 「天皇大帝」로 늘 불러 왔기 때문에 익숙하다. 중국 당의 제3대 황제였던 고종은 도교를 신실하게 믿고 황제라는 칭호에 대신해 일시적으로 「天皇」호를 사용하였다.</p> <p>▷「天皇」호 목간의 출토- 한편 근래, 飛鳥池遺跡(나라현명일향촌)에서 「天皇聚口弘寅口」이라고 불리는 목간이 발견되고, 거기에 「天皇」이라는 문자가 있었다. 제작년대는 함께 출토된 목간의 연호에서 천무초기(7세기 후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율령국가는 천무천황 때에 외교의 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왔던 「大王」이라고 하는 칭호를 중지하고 중국 황제의 칭호를 흉내내어 「天皇」호를 채용하였다. 그 후 이 칭호는 飛鳥浄御原令을 시작으로 규정된 것으로 추측된다.</p> <p>702(大宝2)년에는 30 수년 만에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그들은 국호를 「倭国」에서 「日本」으로, 그리고 군주호를 「大王」에서 「天皇」으로 바꾼 것을 가지고 당으로 건너가 왜국이 당의 제도를 뒤따른 나라가 된 증거로서 외교의 장을 시작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p>

는 '천황'호의 사용 시기를 대체로 7세기 후반으로 설명한다.

實敎出版L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 자료실에서는 '천황' 호 채용 시기에 관한 이견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결국 일본에서 '천황' 호를 정확하게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본의 왕호가 '대

壽国繪帳銘, 野中寺彌勒像台座銘 등의 금석문을 통해 推古기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佐藤 信 外編, 『日本史研究』, 山川出版社, 2008, p.69; 平川 南, 『日本の原像』, 小学館, 2008, pp.42-45).

王'에서 '天皇'으로 바뀐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목간은 문헌 자료의 내용이 실제 當代에 있었던 사실이었음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좀 더 자세히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자. <표 5>의 첫 번째 소제목인 「天皇」 호의 기원에 '일본 및 일본 국민의 상징이라고 규정된 「天皇」이라는 호칭이 언제쯤 성립되었던 것일까'라는 의문에서 서술을 시작하고 있다. 이 문장은 마치 현재의 일본 천황이 과거의 천황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국민국가의 민족주의적 시선이 내포되어 있다.³⁰⁾ 이 구절이야말로 이 목간을 교과서에서 다룬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즉 「天皇」 호 목간은 고대적 천황제를 설명하려는 것에 주안점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천황제가 과거로부터 이어진 연속적인 실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려는 현재적 관점의 의지에서 선택된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³¹⁾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實敎出版 한 곳에만 「天皇」 호 목간이 소개되어 있는데 반해, 중학교는 상당수의 역사교과서에서 「天皇」 호 목간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³²⁾ 이는 앞으로 일본 역사교과서의 변화를 예견하며,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의 머리 속에 더욱 더 강한 '국민국가의 이야기'를 심으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³³⁾

또 교과서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천황제가 일본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오직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뿐이다. 타 교과서에 「天皇」 호 관련 목간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천황' 호의 성립 시기나 현재의 천황제와 고대사 속의 천황제를 연결시키려는 잘못된 시선 등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³⁴⁾ 일반적으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역사적 사실에 관한 비

30) 이성시 지음·박경희 옮김, 2001, 『만들어진 고대』, 삼인, p.32.

31) 이성시 지음·박경희 옮김, 2001, 위의 책, pp.33-34; 서보경, 2016,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대 한일관계 기술에 대한 분석 -2015년도 검정 통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51, p.172.

32) 일본의 목간이 수록된 역사교과서 중 검토 대상은 아니지만 본고의 참고 자료로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중 日本文敎出版, 学び舎, 自由社 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日本文敎出版(2015·2016, p.39)에서는 「天皇」 호 관련 목간 1점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일본에서는 언제부터 '국왕' 호에서 '천황' 호로 정식으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함께 출토된 목간 중 丁丑年(677년)이라고 기록된 목간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天武천황 때는 정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天皇」 호 관련 목간과 丁丑年이 적힌 목간을 나란히 수록하였다. 学び舎(2015·2016, p.41)에는 日本文敎出版과 동일하게 「天皇」 호 관련 목간이 수록되어 있다. 일본이라는 국호는 701년 건당사부터 천황은 天武천황 때부터라고 서술하고 있다. 끝으로 自由社(2015·2016, p.78)는 특집 코너를 통해 일본의 천황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소략하여 일부만 옮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고대국가가 완성되고, 율령제가 도입되어 정치구조를 정비하였다. 그 후 천황은 차츰 정치 실권에서 멀어지게 되고 신들의 제사를 모시는 존재, 혹은 나라를 지배하는 권위(의 상징; 인용자 주)가 되어갔다. 그리고 실제 정치를 행하는 것은 攝政·關白·征夷大將軍 등이 있고, 천황은 그들을 임명하고 정치의 정통성을 보증해 왔다."

33) 일본 문부성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표현과 용어의 수정하도록 하여 역사교과서의 서술을 통해 자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변형시키는 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에서 엄격히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천황'에 대한 역사 서술이다(고야스 노부쿠니·김석근 옮김, 2007, 『일본근대사상비판』, 역사비평사, pp.241-242).

34) 「天皇」 호 관련 목간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보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더 자주 등장한다. 각주(32) 참조. 필자가 말하는 성립 시기의 논란은 한 국가의 군주 호를 제정하는 것이 당시의 국제 정세로 볼 때 당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정하여 국제사회에 공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국에서 677년부터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이 국제적으

판적 사고가 가능하다. 동일 문화권에 있는 일본 고등학생의 경우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山川出版社A를 중심으로 『日本史B』에 수록된 고대 목간의 서술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日本史B』의 고대 목간 관련 서술상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日本史B』에 수록된 고대 목간은 크게 3종으로 압축할 수 있다. 목간㉔는 「長屋王家」 관련 목간으로 實教出版을 제외한 나머지 두 출판사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 목간㉕는 「郡·評논쟁」 관련 목간으로 東京書籍을 제외한 두 출판사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목간㉖는 「天皇」 호 관련 목간으로 實教出版에만 등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日本史B』 교과서 속에서 어떠한 목간을 선택하였는지 그 특징을 추출해볼 수 있다.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된다.

첫째는 기존의 문헌 자료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당대의 풍부한 사회상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목간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長屋王家」 관련 목간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문헌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 모호하거나 논쟁의 소지가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관해 명확한 근거로서 목간을 1차 사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郡·評논쟁」 관련 목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생들에게 문헌 자료가 갖는 약점, 즉 작성시 점이나 역사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그에 비해 당대의 1차 사료가 갖는 역사적 가치를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선택되었다. 셋째는 둘째와 같은 범주의 자료이지만, 교과서를 만들 당시의 현재적 의식이 과도하게 투사된 목간이 선택되었다는 점이다. 「天皇」 호 관련 목간이 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현재의 천황제가 고대의 천황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잘못된 민족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과서 집필자의 설명들이 부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다음으로 『日本史B』의 목간을 소개하는 교과서의 구성 방식에서도 몇 가지 특징이 추출된다. 목간 사진은 시각 자료라는 점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거기에 더해 목간이 어떤 코너에 기재되어 있는지 그 위치가 적재적소인지도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목간 자료의 수록 방식을 살펴보자.

첫째, 山川出版社A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교과서 전체의 도입부에 목간이 소개되어 있다. 역사의 의미를 다루는 교과서의 도입부에서 특별히 목간 자료를 이용해 역사가가 다루는 1차 사료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교과서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1차 사료가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역사가가 어떤 작업을 통해 역사를 복원하는지 그 전반적인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였다. 목간은 문헌 자료로는 알 수 없었던 고대사회의 구체적인 일상의 생활을 복원하는 역할, 동시에 문헌 자료의 오류까지도 시정하는 1차 사료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상세히 알려주기 위해 관련 본문에도 다시 한 번 목간 사진을 배치하여 강조하였다.

둘째, 단월별 주제에 맞는 목간을 선정하여 본문의 서술 내용을 보충하거나 그 근거 자료로서 본문에

로 인정되었다면 한반도나 당의 역사에도 그러한 칭호가 등장해야 하는데 그 흔적을 찾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과연 왜에서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고등학교보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天皇」 호 목간이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민족주의적 사관을 주입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

수록하였다. 이때 본문의 내용이나 캡션을 목간 사진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게 서술된 교과서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과서는 목간의 판독문이나 캡션 등을 통해 목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교과서의 본문이 상호 연관시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고 있었다. 교과서 본문은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학습 자료는 본문의 내용을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중단원이 끝나는 곳에 특집 코너를 마련하여 목간을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實敎出版의 『天皇』호 관련 목간의 서술이다. 이 경우는 교과서의 서술을 좀 더 심화하여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목간을 처음 접할 경우 나무 조각과 관련된 특정 유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목간에 적혀 있는 목서에 관한 제반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사료에 관한 이해를 높여 역사적 상상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³⁵⁾

『日本史B』에서 목간이 어디에 수록되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해당 본문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간을 수록하였다는 점이다. 학습 자료는 그 자료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본문의 서술을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즉, 본문의 서술은 텍스트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면 목간 사진은 그러한 텍스트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간단한 나무 조각에서 역사적 사실을 자세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목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의 서술 내용, 목간에 기록된 글자와 캡션이 모두 하나의 주제에 부합되게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사료인 목간을 교과서에 기재하는 『日本史B』의 방식이 효과적인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이제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의 역사교과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한국사』의 고대 목간 서술 현황

현행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3년 김인정을 통과하여 2018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8종 『한국사』 교과서다. 이 교육과정부터 한반도 출토 고대 목간이 교과서에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역사교과서 속 고대 목간 관련 서술 내용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검토는 역사적 사실의 오류, 편중된 서술, 부적절한 용어 사용, 사료 활용의 적합성 등의 오류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또한 역사교과서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만큼 잘못된 서술의 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사』에 등장하는 고대 목간을 교과서 별로 <표 6>에 정리하였다.³⁶⁾ 먼저 금성사에는 총 6종의 목간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중·고등학교를 포함 전체 역사교과서 중

35) 최상훈, 2000,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와 역사학습목표의 설정방안」, 『歷史敎育』 73, p.14.

36)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8종 『한국사』 중 고대 목간이 수록되어 있는 곳은 (미래엔, 교학사 제외) 금성출판사, 두산동

표 6. 검토 대상 『한국사』 교과서와 고대 목간

교과서	교과서에 기재된 목간이름	교과서에 기재된 제작 시기	교과서에 기재된 출토지
금성사	나니와 목간	·	충남 부여 쌍북리
	급별성 목간	6세기중반	경남 함안 성산산성
	좌관대식기 목간	·	부여
	일본 나라시대의 목간	·	·
	백제 목간	·	전북 익산
	논어 목간	·	인천 계양
두산동아	집표 목간	·	경남 함안
리베르스쿨	발해 관련 목간	·	일본 나라
비상교육 비상교육	발해 관련 목간	·	일본
	발해사 목간	727년	일본 나라
지학사	좌관대식기 목간	6~7세기	충남 부여
천재교육	좌관대식기 목간	·	충남 부여

가장 많은 수이다.³⁷⁾ <표 6>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일한 지역에서 발굴된 목간인데도 목간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거나 출토지와 제작 시기가 누락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목간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당대의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이다.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제작 시기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고대 목간의 제작 시기는 발굴보고서 및 학계의 기존 연구 성과를 통해 몇몇의 목간을 제외하고는 별 다른 이견 없이 정리되어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출토된 고대 목간의 전체 출토 점수는 647점 정도이다.³⁸⁾ 이들 목간은 학계의 검증이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약 700여 점의 목간 중 본고의 검토 대상 교과서에 등장하는 목간을 출토지 별로 나누어 보면 대략 5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에 한반도 출토 목간은 아니

아, 리베르,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총 6종이다. 이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다. 한국 고대 목간의 이름과 제작 시기 및 출토지는 해당 교과서에 기술된 것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표에서 “·” 표시는 내용 설명이 없는 경우다.

37) 현재까지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고대 목간은 다음과 같다. 이하 목간의 이름은 해당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해당 교과서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목간은 필자가 편의상 () 안에 적시하였다. 단, 발해 관련 목간은 한반도 출토는 아니지만 한국 고대사의 일부인 발해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므로 검토에 포함시켰다. 중학교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8종 『역사(상)』 중 비상교육에는 발해 사신 관련 목간, 미래엔에는 백제의 목간과 견고려사 목간이 수록되었다. 현행 역사교과서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9종 『역사①』 교과서에는 논어 목간, 두산동아에는 목간(안압지 출토 1호 목간)과 일본의 목간, 미래엔에는 논어의 글귀가 적힌 목간과 견고려사 목간, 비상교육에는 발해 사신 관련 목간, 좋은책신사고에는 일본에서 발견된 목간, 지학사에는 (발해 관련 목간), 천재교과서에는 꼬리표 목간과 일본의 목간, 천재교육에는 발해사가 쓰인 목간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표 6>과 같다.

38) 2016년 12월까지 신라는 431점, 백제는 216점이다(윤선태, 2016,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사학보』 38, p.392). 필자는 목간의 출토 점수를 윤선태의 견해를 따랐다. 2016년 12월 이후 최근까지의 출토 현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학자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지만 한국 고대사에 속하는 발해(일본 출토)와 관련된 목간(최대 4점)도 포함시키면 6종 정도이다.

40여 만점 중 대략 3종의 목간이 수록된 『日本史B』와 비교하면 『한국사』에 소개된 목간의 종류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치다. 다양한 목간이 역사교과서에 소개된 만큼 목간이 1차 사료로서 적재적소에 얼마나 잘 서술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고고학적인 면에서 목간의 수록은 학계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³⁹⁾

교과서 분석 순서는 금성사를 시작으로 <표 6>에 기재되어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지만, 금성사의 ‘일본 나라시대의 목간’이나 그 외 다른 교과서의 발해 관련 목간은 고대 일본에서 작성된 목간이라는 점에서 한국 출토 목간들과 구분하여 뒤에 별도로 다루려고 한다. 우선 금성사에 소개된 목간부터 살펴 보도록 하자. <그림 2>는 那尔波 목간이 수록된 교과서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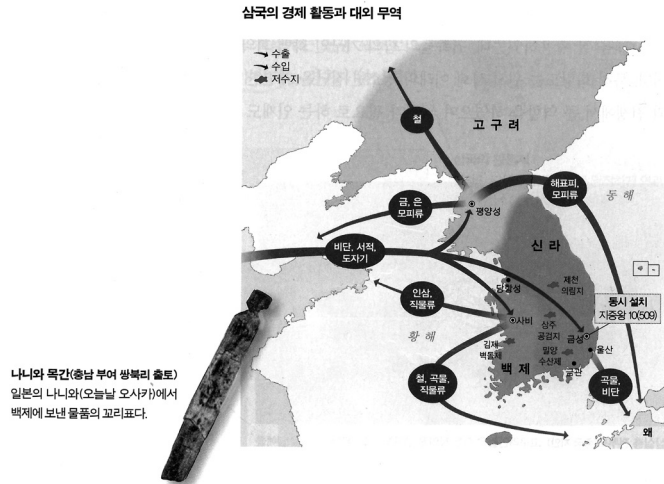


그림 2. 금성사 나니와 목간

의 일부이다. 현행 역사교과서에서 那尔波 목간이 등장하는 곳은 금성사가 유일하다. 那尔波 목간에 관한 논문은 히라카와 미나미(平川南)⁴⁰⁾ 외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림 2>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지도의 제목은 ‘삼국의 경제 활동과 대외 무역’이다. 당시 성행했던 무역로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한반도내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국과의 교류에 초점을 맞춘 단원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히라카와에 의하면 이 목간은 7세기 중엽의 왜국과 백제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목간을 만든 주인공은 백제 왕도 사비에 있던 왜계 관인(那尔波連公)일 가능성, 또는 왜국의 관인이 가져온 調度物 등에 붙인 하찰이 물품과 함께 백제 왕도로 왔다가 폐기되었을 두가지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왜인의 인명만을 쓴 물품 부찰 목간이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한다. 국립부여박물관 측은 특정 인물이 보낸 물건의 하찰이거나 그의 소유품에 대한 부찰로 보았다. ‘連’은 일본의 ‘가바네’라고 하였다.⁴¹⁾ 이처럼 히라카와 및 후속 연구에서는 목간에 적힌 ‘那尔波’를 금성사에서 설명하고 있

39)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p.5; 교육과학기술부, 2011, 앞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p.3.

40) 平川南, 2009, 「백제 왕도 출토 「연공(連公)」 목간 -한국 부여 쌍북리 유적 1998년 출토 부찰」,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연구보고』 제153집, pp.151-153.

41) 국립부여박물관, 2008, 「백제목간」, 소장조사자료집, p.44.


는 것처럼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 관인의 이름으로 이해하고 있다.⁴²⁾

금성사에는 이 목간 사진과 함께 ‘일본의 나니와(오늘날 오사카)에서 백제에 보낸 물품의 꼬리표다’라는 캡션이 달려 있다. 하지만 왜에서 백제로 향하는 수출표시가 없다. 주변국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지도상의 화살표는 동일한 기준으로 표기되어야 학습자들이 지도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판독문은 없고 캡션의 내용은 那尔波가 일본의 현재 지명(오사카)이라는 설명이 전부다. 이는 명백히 기존의 어떤 견해와도 관련이 없는 집필자의 사견임이 분명하다. 이 목간을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 증거로 제시한 것은 적절했지만, 목간의 목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소개한 셈이 된다. 금성사의 那尔波 목간은 백제와 왜가 교류한 사실을 알려주는 사료임에는 분명하다. 금성사의 집필진도 이 목간을 통해서 주변 국가와의 교류를 이룬 어년 한반도의 역사를 언급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 <그림 3>은 ‘역사의 창’이라는 탐구활동 코너를 특별히 활용하여 목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유물에 관한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적절한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목간이 전해 주는 고대인의 경제생활’이라는 제목 아래 ‘금벌성 목간’과 ‘좌관대식기 목간’을 소개하고 있다. 서술상의 특징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목간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위치다. 이는 금성사의 첫 번째 수록 목간인 那尔波 목간이 등장하는 곳에서 목간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이 더 효

역사의 창

목간이 전해 주는 고대인의 경제생활



● 금성산성 목간에 보이는 지역
● 목간이 출토된 장소
● 고대인 생활 터전

최근 고대인들이 나무에 문자를 기록한 목간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목간에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인의 생활 모습이나 신앙 세계가 생생하게 적혀 있어, 고대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역사 자료로 떠오르고 있다.

성산산성에서 발견된 목간이 전해 주는 신라의 조세 운송 체계


성산산성(경남 함안)은 신라가 가야를 정복하고 쌓은 낙동강가에 있는 성이다. 이곳에서는 6세기 중반에 작성된 신라 목간이 230여 점이나 발견되었다. 이들 목간은 대부분 세금을 바칠 때 장애 부채한 꼬리표로, 어느 지역의 누가 세금을 얼마 바쳤는지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벌성 문서 이배일석(及茂城文尸一拜一石)’이라고 적힌 목간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금벌성’에 사는 문서이라는 사람이 꾀 한 섬을 바친다는 내용이다.

성산산성 목간에 나오는 금벌(영주), 고파(안동), 구리성(상주), 감문(언천) 등의 지명은 낙동강 중상류 유역에 위치한 곳으로, 당시 행정 구역상 상주에 속한다. 이를 통해 신라는 성산산성을 쌓으면서 주로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여 중상류 지역의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제의 좌관대식기 목간이 전해 주는 고대의 이자율

백제 도성이었던 부여에서 고대의 이자율을 보여 주는 목간이 발견되었다. 이 목간에는 좌관이라는 백제 관청(또는 관리)이 총 9명에게 빌려 준 곡식의 양 같은 양, 아직 갚지 못한 양 등이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다.

예를 들어 전목지라는 사람의 경우 2석을 빌려줬는데, 2석을 갚았고, 아직 1석을 갚지 못하였다고 적혀 있다. 전목지가 2석을 빌려서 총 3석을 갚아야 한다는 것인데, 3석은 원금에 이자를 합한 양이다. 당시 이자율이 무려 50%에 달하는 고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 이 목간에 나오는 9명 가운데 원금을 모두 갚은 사람은 2명에 불과하였고, 이자까지 모두 갚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



금벌성 목간



좌관대식기 목간

참고 1 삼국 시대에 종이 대신 목간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 삼국 시대에는 목간에 주로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알아보자.

그림 3. 금성사 금벌성 목간 및 좌관대식기 목간

42) 이치 히로키 역시 那尔波는 지금의 오사카를 뜻하기도 하지만 목간 적힌 那尔波는 일본인 중 외교 업무에 종사하는 관인의 이름이라고 하였다(이치 히로키 지음·이병호 옮김, 2014, 『아스카의 목간』, 주류성, pp.65-66).

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삼국의 사회 모습과 경제 활동’이라는 중단원 말미에 배치되어 이들 목간 자료를 통해 본문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그림 3>의 급별성 목간에 관해 판독문과 그것과 연관된 설명을 넣어 학습자들이 당시 하찰목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좌관대식기 목간에 대해서는 판독문이 실려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또, 급별성 목간의 우측 사진과 좌관대식기 목간(앞면)의 좌측 사진은 적외선으로 촬영한 목간 사진이다. 이 사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은 하지 않고 사진만 나란히 기재하였다. 목간에 대한 지식이 적은 교사나 학습자들은 나란히 있는 두 목간이 각기 다른 목간이거나 같은 목간의 앞, 뒷면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

좌관대식기 목간을 통해 이자율에 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목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 대식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림 3> 하단의 ‘열린 생각’에서는 본문의 서술 외에 발문을 통해 학습자들의 역사적 사고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첫 번째 발문은 목간이 무엇인지를 배운 학습자라면 자유롭게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 얼마든지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발문을 학습자들 스스로 얼마나 해결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역사를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⁴³⁾ 목간에 관해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습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한 교과서에서 주어진 사료만으로 학습자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발문은 학습자들의 학습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표 7>의 ① 목간 사진에는 고대 한국어 표기 중 일곱(日古巴)이라는 금성사에서 우리말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점선을 표시해 강조하고 있다. 이 목간이 수록된 곳은 중단원 2장 ‘한자와 유학을 수용하여 발달 시키다’이다. 세부 단원은 ‘한자와 유학의 수용’과 ‘역사서 편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은 동아시아의 공통 문화인 한자와 유학의 보급으로 기본 경전과 많은 역사서가 편찬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목간 외 시각 자료들도 한결같이 한자와 유학에 관한 학습 자료들로 편재되어 있다.

동아시아의 공통 문화인 한자와 유학을 주로 다루는 코너에서 고대 한국어의 원형을 소개하기 위해 이 목간을 수록한 것을 알 수 있다. 한자와 유학이 모두 중국을 통해 한반도로 유입되었으나 그 전부터 한반도에는 우리말의 표기가 존재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목간에 기록된 문자의 전체적인 해석은 알 수 없으며, 단지 우리말 표기가 있다는 것만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목간은 익산 미륵사 유적 발굴조사 때 출토되었는데 통일신라시대로 보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⁴⁴⁾ 날짜와 사람 이름을 적은 기록 혹은 글씨 연습을 한 것이라고 한다(나무 속 암호 목간, 2009). 금성사에서는 이 목간의 이름이 ‘백제 목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작국이 백제라는 의미인지, 백제를 대표하는 목간이라

43) 김한중, 2013, 앞의 논문, p.88.

44) 이 목간은 통일신라시대 초 조성된 연못에서 출토된 것으로 학계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보고 있다(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韓國의 古代木簡』 개정판, p.19, pp.238-241;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나무 속 암호 목간』, p.132; 권인한, 2012, 『韓·日 初期 木簡을 통해서 본 한문 어법의 선택적 수용과 변용』, 『日本研究』 第13輯, p.82.

는 의미인지 알 수 없다. 학습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서술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성사에서는 우리말을 나타내는 특정 글자에 점선으로 표시하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목흔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전체 판독문과 함께 서술을 한다면 이 목간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인천 계양산성에서 출토된 『논어』 목간에 관한 서술 검토이다. 한반도 출토 『논어』 관련 목간은 인천 계양산성 외에 김해 봉황동, 부여 쌍북리 백제 왕경 유적⁴⁵⁾에서 출토된 목간과 평양 정백동 364호분에서 『논어』 죽간이 있다.⁴⁶⁾ 일본에서는 『논어』 목간이 지금까지 약 30점 정도 출토되었으나 한반도에서는 위 세 곳 외는 유교의 典籍을 기록한 목간은 출토된 사례가 없다.⁴⁷⁾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인천 계양산성 출토 『논어』 목간의 제작 시기에 관해 백제설과 통일신라설로 대립하고 있다. 인천 계양산성에서 『논어』 목간을 최초로 발굴한 선문대고고연구소 측은 보고서⁴⁸⁾를 통해

45) 2018년 한국목간학회 하계워크샵에서 발굴을 담당한 울산발전연구원들이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논어』의 ‘학이편 1·2장의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한지아·김성식, 2018, 「부여 쌍북리 56번지 사비 한옥마을 조성부지 유적 출토 목간 보고」, 한국목간학회 하계워크샵 발표문).

46) 1990년대 초 평양시 락랑구역의 정백동 364호분에서 『논어』 권11과 권12가 기재된 죽간이 출토되었다. 39매 중 31매는 선진편, 8매는 안면편이다. 이 『논어』 죽간은 묘주가 생시에 사용하면서 상당 기간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성시·윤용구·김경호, 2009, 「평양 정백동 364호분 출토 죽간 『논어』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4, p.134). 정백동 364호분의 『논어』 죽간은 한국의 고등학교 『동아시아』 교과서 중 2011년 발행본(허베이 성 덩저우 출토 논어 목간(기원전 1세기경), 평양 정백동 논어 죽간(기원전 1세기경), 인천 계양산성 출토 논어 목간(3~4세기경) 사진이 나란히 수록되어 있다. “논어”의 보급이라는 캡션의 제목 아래 이들 자료를 통해 한 무제 이후 유교 문화가 동아시아 각 지역으로 널리 확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천재교육, p.74)에 등장했으나 2013년 발행본에는 어디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 죽간은 『논어』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을 알리는 최초의 사료로서 커다란 가치를 지니지만 현행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47) 橋本繁, 『韓國古代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2014, p.124; 橋本繁, 「金海出土 『論語』木簡について」, 『韓國出土木簡の世界』, 朝鮮文化研究所, 2008, pp.248-260.

48)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의 발굴 조사(2005·5·11일) 후 유물 공개(2005·6·27일)가 있던 다음 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계양산성 출토 『논어』 목간이 백제 한성시기인 400~480년 것으로 신문 자료를 통해 보도하였다. 다음은 당시의 신문자료이다(『동아일보』, 2005·6·28, 화요일, 문화 A17면 ‘국내 最古 백제 목간 발굴’; 『조선일보』, 2005·6·28, 화요일, 사회 A09면, ‘백제 4세기 ‘논어 책’ 목간 발굴’; 『중앙일보』, 2005·6·28, 화요일, 종합 11면, ‘국내서 가장 오래된 목간 발굴’).

인천 계양산성에서 출토된 2개의 목간 중 목간1(2차 발굴)은 『논어』 제5장 공야장의 일부를 초사한 것으로 5각형의 다면체 목간인 椀이다. 목간의 1면에 2장, 2면에 5장, 3면에 7장, 4면에 8장, 5면에 9장, 10장의 내용이 일부분석 기록되어 있다. 목간 2(3차 발굴)는 대부분 黑化 현상이 일어나 ‘子’자 외는 글자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목간 1과 같은 시기의 필명으로 보아 『논어』의 일부를 필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목간의 제작 시기에 관해서는 4~5세기경으로 한성백제 시기로 본다. 그 근거는 공반유물 중 제1 集水井에서 출토된 圓底短頸壺가 전형적인 한성백제시대 토기라는 점을 들어 편년 시기를 4~5세기경의 백제의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목간의 서체가 戰國시대에서 漢대와 魏晉 시기에 유행하던 것 중 하나로 보고 4~5세기경의 사경체와 관계가 깊다고 보는 점, 목간과 함께 출토된 2점의 목제 시료의 제작 시기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에 의해 4~5세기경으로 판명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이들과 같은 층에서 출토된 목간 역시 4~5세기경으로 보고 있다. 또한 4세기 후반(384년)에는 이미 백제에 불교가 들어왔으며, 이때 불경이나 유교 경전, 『도덕경』과 같은 제자백가의 서적은 물론 경전의 중심인 『논어』가 당연히 들어왔을 것이라고 하였다.

백제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선태는 인천 계양산성 목간을 통일신라시대의 목간으로 이해하였다. 이 목간은 김해 봉황 논어목간과 같이 『논어』의 ‘공야장’편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과 목간의 다면형이라는 점에서 〈觚〉 목간들과 형태나 기능상으로 맥을 같이 한다고 하였다.⁴⁹⁾ 이용현은 인천 계양산성의 경우 불안한 토층을 근거로 목간을 3~4세기의 백제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통일신라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⁰⁾ 권인한 역시 인천 계양산성 출토 『논어』 목간은 국학을 세운 신문왕 2년(682)이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에 인천 계양산성과 김해 봉황동에서 출토된 두 『논어』 목간은 국학의 설치와 여기서 이어지는 교육과 학습이라는 통일신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떠나서 생각하기 어려운 존재라며 통일신라설에 무게를 두었다.⁵¹⁾ 윤선태, 이용현, 권인한 외에 인천 계양산성 출토 목간의 제작 시기가 백제보다는 통일신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연구자는 하시모토 시게루[橋本 繁]이다. 그는 발굴보고서 측에서 밝힌 백제설의 근거 세 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하였다.⁵²⁾

연구자들 간에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내용일 경우 학계에서 널리 인정을 하는 전통적인 학설을 수록하거나 이견이 있다면 함께 서술해야 한다. 역사교과서에 통설을 벗어난 사관, 개인의 신념이 투영되는 순간, 객관성과 중립성이 부정되기 때문이다.⁵³⁾ 결론적으로 인천 계양산성의 『논어』 목간은 정확한 제작 시기를 파악하기 힘들다.⁵⁴⁾

〈표 7〉의 ② 금성사에서는 『논어』 목간의 제작국을 통일신라시대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대로 이 목간의 제작 시기를 통일신라로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습자는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역사교과서의 서술이 역사가의 관점이 포함된 하나의 해석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⁵⁵⁾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실에 관해서는 더욱 신중한 서술이 필요하다.

다음은 두산동아의 목간 관련 서술 내용을 검토해보자. 〈표 7〉의 ③과 같이 두산동아에는 경남 함안에

49) 윤선태,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pp.66-67; 윤선태, 2016, 앞의 논문, p.405; 윤선태, 2008, 「목간으로 본 한자문화의 수용과 변용」, 『신라문화』 32, pp.181-182.

50) 이용현, 2006, 「한국목간기초연구」, 신서원, pp.40-41.

51) 권인한, 2015, 「출토 문자자료로 본 신라의 유교경전 문화」, 『구결연구』 35, pp.43-46.


52) 하시모토가 발굴보고서의 백제설에 대해 반박한 내용이다. 첫째, 서체에 관해서는 한반도에서 사용된 서체가 동시대의 중국과 반드시 공통된 것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둘째, 원저단경호의 연대가 4~5세기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층에서 발굴된 목간의 연대가 그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반드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셋째 목재의 연대도 같은 이유로 백제설을 부정하였다. 하시모토는 장을 달리하여 통일신라의 것으로 추정하였다. 논어의 학습은 최종적으로 중급관리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았다. 골품제하에서 관리 출신의 길이 한정되어 있던 6~4두품들이 국학에 입학해서 대나마, 나마의 관리가 되기 위해 논어를 암송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橋本繁, 앞의 책, 2014, pp.130-131).

53) 양정현, 2014, 「역사교육에서 사실, 해석 그리고 주체와 관점 -2013년 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역사와교육』 9, p.203.

54)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재단법인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09, 『인천 계양산성 4차 발굴조사약보고서』에 의하면 출토된 유물 가운데 토기류는 신라~통일신라시대, 기와류는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백제의 3~4세기 목간으로 추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55) 김한중, 2013, 「사료내용의 전달방식에 따른 고등학생의 역사이해」, 『歷史教育』 125, p.207; 김한중, 2015, 앞의 논문, p.22.

표 7. 『한국사』 교과서 속 고대 목간

① 금성사 백제 목간	② 금성사 논어 목간	③ 두산동아 집포 목간	④ 지학사 좌관대식기 목간	⑤ 천재교육 좌관대식기 목간
 <p>백제 목간(전북 익산 송포) 일괄(日古巴) 등 숫자와 관련된 유리할 표기가 보인다.</p>	 <p>논어 목간(인천 계양) 지방 각지에서 발견되는 통일 신라 시대의 논어 목간은 당시 유교 경전이 널리 보급되었음을 잘 보여 준다.</p>	 <p>집포 목간(경남 함안 송포) 세금을 낼 때 납부자의 이름과 소속 지명, 서역 등을 기록한 꼬리표이다. 구멍을 뚫거나 표목하게 깎아 물간에 묶거나 꽂았다.</p>	 <p>○ 좌관대식기(佐官貸食記) 목간(충남 부여) 6~7세기 백제 목간으로, 곡식을 물려받을 때 물에 꾸어 준 곡식의 30에서 50%를 이자로 받은 사실을 알려 준다.</p>	 <p>좌관선 사건</p> <p>앞면 뒷면 앞면 뒷면</p>

서 출토된 4점의 집포 목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목간에 대해 어느 시대, 어느 시기의 목간인지 설명이 없다. 두산동아에서 목간이 수록된 곳은 교과서 본문의 날개주다. 목간에 기록된 글자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판독문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한 점이라도 판독문을 소개하였다면 학생들이 당시의 세금에 매달려있던 집포 목간의 서술 내용을 통해 좀 더 나은 역사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쉬운 대목이다.

다음은 지학사의 고대 목간 관련 서술 내용을 검토하여 보자. <표 7>의 ④과 같이 지학사에서는 좌관대식기 목간이 1점 수록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는 농민에게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농민이 귀족에게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고 서술하며 진대법을 소개하고 있다. 백제에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좌관대식기 목간’은 이러한 구휼적 성격과는 반대되는 국가가 오히려 식리 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알려 주는 증거 자료이다.⁵⁶⁾ 혹은 이자율에 대한 캡션의 설명으로 볼 때 교과서의 저자는 좌관대식기 목간을 ‘귀족층이 농민을 흡수하는’ 사례로 제시한 것일 수도 있는 것 같다. 이는 좌관대식기 목간에 대한 학계의 의견과 다르다. 누가 누구에게 왜 빌려 주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현재의 캡션만으로는 귀족층이 농민을 흡수하는 사례로 교사들이 설명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천재교육의 고대 목간 관련 서술 내용을 검토하여 보자. <표 7>의 ⑤과 같이 천재 교육은 삼국의 경제 생활을 설명하는 소단원에 해당 목간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의 주 내용은 조세제도 및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 수공업과 시장 형성에 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그와 함께 좌관대식기

56) 정동준, 2009, 「‘좌관대식기’ 목간의 제도사적 의미」, 『목간과 문자』 4, pp.25-28.

목간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캡션은 좌관이 곡물을 대여해 주고 이자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본문에서는 한 고구려 진대법을 소개한 바로 뒤이은 문장에서 백제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 좌관대식기 목간이 실제 진대법과 같은 백제의 구휼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더욱이 목간의 실제사진과 적외선 사진을 소개하였으면서도 판독문은 전혀 실려 있지 않다. 왜 적외선 사진을 소개하였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적외선 사진의 공간에 실제 목간 내용을 소개하면 되는데, 교사와 학생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사진이 선택된 셈이다. 왜 목간에 적외선 사진을 찍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목간에 목서의 흔적은 있지만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외선 촬영을 동원해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글자까지 판독할 수 있게 되었다.⁵⁷⁾ 현대 과학이 목간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면 좋았지만 적외선 사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 교육현장에서 과연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끝으로 각 교과서에 실려 있는 발해 관련 목간을 검토해 보자. 발해 관련 목간은 총 4점이 있다. 이 목간들은 발해와 빈번한 외교 관계를 가졌던 고대 일본에서 작성한 목간들인데,⁵⁸⁾ 발해와 관련된 내용이 목서되어 있다.⁵⁹⁾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渤海使’ 목간과 ‘遣高麗使’ 목간이다. 이 두 종류의 목간은 8세기 무렵 일본의 수도였던 平城京(현 奈良市) 유적에서 나온 것이다. 목간이 출토된 근처는 長屋王의 저택지로 추측하고 있는 곳이다. 長屋王과 발해 사절단의 만남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목적의 교역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⁶⁰⁾ 발해와 일본 간 외교 활동과 함께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사실은 역사교과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후자의 ‘遣高麗使’ 목간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사실과 함께 일본과의 교류를 주로 나타내는데 인용되는 목간이다. 두 종류의 발해 관련 목간은 역사교과서에 다시 세 가지 방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첫 번째는 ‘遣高麗使’가 기록된 목간 1점만 수록, 두 번째는 ‘遣高麗使’ 목간 1점과 그 외 기타 목간 2~3점 수록, 세 번째는 ‘渤海使’ 목간 1점만을 수록한 교과서다.

먼저 ‘遣高麗使’ 목간 1점을 수록한 금성사에서는 ‘遣高麗使’ 부분만을 더욱 확대하여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일본에서 발해에 파견한 사절을 ‘遣高麗使’라고 표현하여, 일본이 당시 발해와 고구려를 동일

57) 윤선태, 2007, 앞의 책, pp.41-42.

58) 발해와 일본은 47회 정도 교류하면서 외교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발해에서 일본으로 34회, 일본에서 발해로 13회 방문하였다. 발해의 역사가 229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임을 감안한다면 두 나라의 관계가 긴밀하였음을 알 수 있다(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p.149; 石井正敏, 『東アツア世界と古代の日本』, 2003, 山川出版社, pp.26-27).

59) 이성제 외, 2010, 『고대 환동해 교류사 -2부·발해와 일본』, 동북아역사재단, p.158.

60) 이성시는 발해 관련 목간을 통해 일국의 외교사절단이 상대국의 유력자에 대해 증여뿐만 아니라 교역까지 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정치적인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외교의 장에서 교역이 전개된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였다(李成市, 『東アツアの王權と交易』, 青木書店, 1997, pp.102-105).

표 8. 『한국사』 교과서 속 발해 관련 목간

목간 이름 ⁶¹⁾	목간 사진	교과서 서술 내용
견고려사 목간		금성사, 60쪽 캡션 발해를 '고려'라고 표현한 일본 나라 시대의 목간.
견고려사 목간 외		비상교육, 48쪽 생각을 키우는 자료실 일본에서 출토된 발해 관 련 목간. 발해는 건국 초 영 토 확장 과정에서 당·신라 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 에 발해는 일본과 연합하고 자 빈번하게 왕래하였고, 점 차 일본과의 교역에 관심을 가졌다. 일본에서 출토된 발 해 관련 목간을 보면 당시 일본이 발해에 보낸 사신을 '견고려사'라고 표현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목간에는 758년 발해 사신 양승경과 함께 귀국하였던 일본 오노 다모리 일행이 특진한 사실 이 기록되어 있다.
발해사 목간		리베르스쿨, 46쪽 캡션 '발해사(渤海使), 교역(交 易)'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 어 당시 발해와 일본 간에 교류가 있었음을 알려 준다.

한 실체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²⁾ '遣高麗使' 목간은 8세기에 고대 일본이 한반도의 삼국을 고대 일본의 조공국으로 인식했던 사고가 투영되어 발해를 고려로 호칭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료를 '발해=고구려'라는 등식에만 집착하여 실제로 고대 일본의 왜곡된 역사상을 전달하는 자료일 수도 있는데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⁶³⁾ 특히 비상교육에서는 '생각을 키우는 자료'〈유물로 보는 발해와 일본과의 교류 모습〉이라는 제목 하에 '遣高麗使' 목간을 비롯한 3개의 목간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 '貊人'이라는 목서에서 소개한 것일지라도 고대 일본에서 사용한 점에서 더욱이 그러하다.

소략하게나마 『한국사』 교과서에 기재된 발해 관련 목간의 서술 현황을 살펴보았다. 발해와 관련된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

다. 필자의 줄고에서도 이미 정리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교육 지침과 무관하지 않다. 발해사와 관련된 서술은 집필 기준에서부터 주변국과의 교류 관계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기술하도록 명시하고 있

61) 발해 관련 목간은 출토지를 기재하지 않은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목간의 이름만 필요에 의해 적시하였다.

62) 佐藤信, 『日本と渤海の古代史』, 山川出版社, 2003, p.107.

63) 임상선 편역, 1990,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pp.294-295; 石井正敏, 「日渤海交渉における渤海高句麗繼承國意識について」, 『中央大学大学院研究年報』 4, 1975.

기 때문이다.⁶⁴⁾

이상과 같이 한국 역사교과서의 고대 목간 관련 서술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사』의 고대 목간 관련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일 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목간 관련 서술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한국 역사교과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IV. 『한국사』의 고대 목간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금까지 한·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고대 목간 관련 서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목간 관련 내용이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는지, 1차 사료로서 목간의 가치가 본문 내용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효율적으로 서술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필자가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고대 목간의 출토나 그에 관한 연구, 그리고 역사교과서에 목간이 수록된 시기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빠르다. 그것이 일본의 목간 연구가 우리나라의 목간 연구를 무조건 앞선단가 교과서의 서술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본장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한국사』 교과서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앞서 분석한 II장의 일본 역사교과서의 분석과 그 틀을 비교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사』에는 총 6종의 목간이 등장한다. 이들 목간은 대부분 경제 분야와 관련된 목간들로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잘 나타나 있듯이 통사 전개 속에서 사회·경제사를 강조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⁶⁵⁾ 수록 빈도 수가 가장 높은 좌관대식기 목간은 백제의 이차율이나 구휼 정책 및 조세를 포함한 경제 생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도 신라의 조세 제도와 관련된 하찰목간이다.⁶⁶⁾ 특히 『한국사』에는 주변국과의 활발한 문화 교류나 교역에 역점을 둔 목간을 수록하였다. 동아시아의 공통문화 요소인 한자와 유교를 설명하는 좋은 예로 『논어』 목간, 왜와의 교류를 짐작할 수 있는 那尔波 목간과 왜와의 교섭을 통해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이루고자 한 발해 관련 목간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목간을 소개하는 가운데에 많은 오류가 확인된다. 첫째 목간 목서의 판독에 관한 역사학계의

64) 교육과학기술부, 2011, 앞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p.3;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1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과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p.23, p.61.

65)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14, 위의 연구보고서, p.23.

66) 함안 성산산성에서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목간 발굴조사가 시행되었다. 현재까지 출토된 목간은 309 점인데 그중 목서가 확인된 것만 245점으로 한반도 최다 출토지다. 대부분이 세금 꾸러미에 부착된 하찰목간이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된 17차 발굴조사에서는 문서목간과 간지가 목서된 목간도 새롭게 출토되었다(국립가야문화재 연구소, 2017, 『한국의 고대목간 II』).

견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금성사의 나니와 목간이 그러하다. 그 목간의 목서 해석은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한편 좌관대식기 목간은 목간의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한 서술이 이루어졌다. 이 목간을 현존 자료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은 백제의 구휼책과 연결시키거나, 귀족이 높은 이자율로 농민을 흡수하는 사례처럼 느껴지도록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좌관대식기 목간에 대한 학계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논어』 목간의 경우는 제작국이나 제작 시기 등에 관해 학계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신라 것으로 단정 지어 서술한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된다.⁶⁷⁾ 그러나 史實 관계의 오류는 학습자들의 역사적 상상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이 목간을 통해 한자, 유교 등에 기초한 동아시아 문화권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사』에 수록된 고대 목간은 사회·경제사 분야를 강조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사회 경제나 문화 관련 목간들을 기존 학계의 연구 성과의 세심한 검토 없이 다소 성급하게 수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교과서 속에서 고대 목간을 소개하는 구성 방식이다. 『日本史B』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목간 캡션 속에 판독문과 목간의 내용이 자세하게 부연 설명되어 있었다.

반면 『한국사』에 수록된 목간 관련 서술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단 한 곳(금성사의 급벌성 목간)을 제외하면 판독안을 제시한 곳이 없다. 목간은 사료의 특성상 기록된 글자를 알 수 있도록 수록해야 한다. 교과서에 실린 사진만으로는 목서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학습자들 스스로 고대에 사용된 한자를 해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간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 목간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史實 관계가 모호한 해설보다는 학계의 연구 성과가 충실하게 반영되는 문장이 요구된다. 때에 따라서는 이 경우 각주를 이용해도 좋겠다. 각주는 제6차 교육과정인 국정교과서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방법이다.⁶⁸⁾ 각주를 통해 부연설명을 하는 것도 좋고,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기재하여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현재 학계에서 논쟁 중인 목간의 교과서 기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성사에 기재된 『논어』 목간은 제작국에 관한 논쟁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라고 딱 잘라 서술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과서 저자들은 자신들의 학문적 식견이나 교육과정의 관계를 중시하여 교과서를 연구하고 집필한다. 이 과정에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학생들에게 그대로 이해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다. 반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배경 지식에 따라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⁶⁹⁾ 고고학 자료는 1차 사료로서 뛰어난 가치가 있는 반면

67) 양호환, 2009, 『역사교육의 이론』, 책과함께, p.238.

68) 국사편찬위원회, 1990,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69) 양호환, 1996, 『역사교과서 서술 양식과 학생의 역사이해』, 『歷史教育』 59, p.3.

제작 시기와 용도 면에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도 한다.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설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럴 경우에는 교과서 집필진의 의도에 따라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기타의 견해도 함께 기술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해석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⁷⁰⁾

넷째는 『한국사』를 서술할 때는 본문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간을 수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사료로서 목간의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학습 자료의 정의에 맞게 본문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서 사진을 통해 본문의 서술 내용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즉, 본문의 서술은 텍스트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면 목간 사진은 그러한 텍스트의 서술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長屋王家」 관련 목간이나 「郡·評 논쟁」 관련 목간처럼 이러한 점에 충실하였다. 본문의 서술 내용, 목간에 기록된 글자와 캡션이 모두 하나의 주제에 부합되게 자세하게 서술되어 교과서 구성에 부족한 점이 거의 없었다.

『한국사』의 목간 서술은 광의적으로 생각한다면 모두 관련 있는 서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갈 경우 이런 목간도 있다는 식의 소개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금성사의 那尔波 목간은 왜와 한반도의 교류를 나타내는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목간에 적힌 내용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서술이 아닌 단순 사료 소개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좌관대식기 목간은 백제의 경제 생활 중 대식에 관한 내용을 1차 사료를 통해 접할 있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다만 목간의 판독을 통해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담아내지 못하였다. 두산동아의 짐포 목간은 교과서 본문과 연계성이 가장 뒤떨어진 사례로 목간의 판독 내용이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논쟁 중인 목간이 수록되기도 하였다. 『논어』 목간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한·일 역사교과서를 분석하면서 필자가 느낀 『한국사』의 고대 목간 관련 서술의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몇 가지 더 제시해보았다. 첫째는 목간의 정의를 설명하고 목간의 명칭이 통일되면 학습자들의 목간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역사교과서에 목간이 사료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역사(상)』 2011년 발행)는 다른 1차 사료에 비해 짧다. 교과서에 처음 등장하는 신출 자료로서 목간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간의 정의를 기술한 교과서는 금성사와 천재교육이다. 『日本史B』의 경우도 목간의 정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사』에 비해 해당 목간의 출처지의 개관이라든가 서술 패턴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간의 정의를 대신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목간의 명칭은 현재 역사학계에서도 통일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역사교과서를 통해 목간을 교육 현장에서 처음 접한 학생들은 같은 출처지의 같은 목간이 교과서마다 이름을 다르게 설명한다면 학습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⁷¹⁾ 목간의 명칭 통일에 관한 작업은 짧은 시간에 몇몇 특정 사람

70) 佐藤 信의 編, 『日本史』, 山川出版社, 2008, p.2; 양호환, 1996, 위의 논문, p.6.

71) 경남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경우 「한국사」 금성사에서는 「금별성목간」으로 「한국사」 두산동아에서는 「짐포목간」으로 표

들에 의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학계의 통일안이 없는 상태에서 역사교육학계가 나서라는 의미가 아니다. 적어도 교과서에서 사용할 경우는 관계 선생님들이 전문 연구가들의 조언을 통해 마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목간 관련 서술은 역사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목간의 용어 통일 작업은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둘째는 한국과 일본의 고대 목간, 나아가 중국의 죽간이나 목간 등을 함께 수록하는 것을 제안해 보고 싶다. 예를 들어 『논어』의 일부가 목서된 목간은 한·중·일 삼국 모두에서 출토되었다. 세 나라가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논어』를 동일하게 목간 형태로 제작하여 공유하였다는 역사적 경험은 그 만큼 『논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⁷²⁾ 이들 목간을 나란히 소개하여 유교 지식을 갖춘 관리 채용 시스템을 비교해 보는 것도 새로운 재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는 그동안 문헌 자료로만 접해 온 史實을 목간의 출토로 인해 1차 사료에서도 확인한 사례도 있다. 한국의 안압지 출토 목간 중 ‘洗宅’이라는 글귀가 적힌 185호 목간이 이에 해당 한다.⁷³⁾ 이 용어는 문헌 자료에는 등장하지만 당대에 실존했는지, 사용되었는지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1차 사료인 목간이 등장함으로써 그 실체가 확인되었고 문헌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일본의 「長屋王家」 관련 목간이 당시 귀족의 식생활을 보여주는 목간이라면 한국의 안압지 출토 목간은 신라 왕궁의 일상사와 식생활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넷째는 목간 사진 자료와 함께 판독안을 함께 제시할 것을 권하고 싶다. 목서가 뚜렷한 목간을 선정하여 목간 사진과 함께 각 면에 기록된 문자를 제시하는 것은 사료가 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판독안을 제시한 교과서는 금성사의 급별성 목간이 유일하다. 일부 발해 관련 목간에서 부분적인 판독이 제시되어 있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목간은 기록된 문자의 의미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목간 자료의 활용도를 지금보다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고대 목간의 대부분은 경제 분야에 해당하는 목간이다. 그러다보니 교과서마다 기재된 목간의 종류와 서술 내용이 비슷하다. 이는 목간에 목서된 내용만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간의 용도는 목서된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목간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정보를 서체를 통해서 알 수도 있다. 목간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목간에 목서된 필체도 다양하다. 세금의 짐꾸러미에 부착하는 하찰목간과 관문서로 활용된 문서목간의 서풍은 확연한 차이가 난다. 특히 성산산성 목간의 목서는 금석문에서는 볼 수 없는 신라 서예의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⁷⁴⁾

기하고 있다.

72) 김경호, 2012, 앞의 책, p.139.

73) ‘洗宅’이라는 글귀가 적힌 185호 목간은 『역사①』의 천재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세택은 동궁을 시종드는 관부로 삼국사기에 등장한다. 목간의 출토로 문헌에서만 알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1차 사료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된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 목간에 관해서 『역사①』 천재교과서의 본문 서술이나 캡션에는 세택에 관한 언급은 없다.

74) 정현숙, 2017,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서체」, 『한국 고대목간Ⅱ』,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p.480.

양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대 목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자국의 국내 정치사를 강조하는 면이 강하였다. 이는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3종의 목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변 나라와의 교류를 강조함으로써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목간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목간은 那尔波 목간과 『논어』 목간 그리고 발해 관련 목간이다. 那尔波 목간은 백제와 왜의 경제 교류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논어』 목간은 한반도에서 왜로 전래된 한자 및 유교 문화를 나타내는 목간이다. 발해 관련 목간은 발해와 왜의 정치 및 경제 교류를 알려주는 귀중한 사료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역사교과서에서 자신들의 원대한 이상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역사가 세계사와 함께 하는 이상을 달성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日本史 학습의 목적이라고 기술한 출판사도 눈에 띄었다.⁷⁵⁾ 또, 山川出版社에서는 일본이 혼자 힘으로 역사를 이루어낸 것은 아니며 주변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현재의 일본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기술하고 있다.⁷⁶⁾ 이에 반해 일본 역사교과서의 목간 관련 서술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변 국가와의 교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미 이성시에 의해 일본 목간에는 체제나 형식면에서 한반도의 목간에 영향을 받은 경향성이 확인되었으나⁷⁷⁾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와의 교류 속에서 자국의 목간 문화가 갖고 있는 위상을 언급한 내용은 교과서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⁷⁸⁾

V. 맺음말

본고는 한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고대 목간 관련 서술 내용의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참고하였다.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중 채택률 3위 이내의 山川出版社, 東京書籍, 實教出版을 분석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우선은 역사교과서에 어떤 목간이 선택되었는지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75) '더 좋은 일본을 건설함에 있어서 더 좋은 세계의 현실에 돌진하는 그러한 원대한 이상을 달성하는 것에 일조로 일본의 역사를, 일본을 둘러싼 역사와의 연계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日本史 학습의 목적이라고 하였다'(家永三郎 외 4인, 新『日本史B』, 三省堂, 1995·2001, p.2).

76) '늘 주변 모든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영향을 받고 인류의 역사로서 공통된 면을 가짐과 동시에 개성도 만들어 내면서 현재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것은 현대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대해서도 주변지역과 먼 곳의 모든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 갈 필요를 가르치고 있다'(大津透 외, 山川出版社, 新『日本史B』, 2003·2004, p.2).

77) 李成市, 2010, 「木簡を通してみた百濟と日本(倭國)の關係」, 『百濟』, '2010 세계대백제전 국제학술회의-교류왕국, 대백제의 발자취를 찾아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pp.84-88; 이성시는 함안 성산산성의 목간을 중국과 일본 목간의 중간단계로 이해한 후, 한국·중국·본의 고대 목간의 공통성과 유사성을 "중국대륙(A→한반도(A'→B)→일본열도(B'→C)"라는 도식을 설정하여 동아시아 고대 목간의 전파, 수용, 그리고 변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李成市, 2002, 『古代朝鮮の文字文化と日本』, 國文學47卷-4號, p.15의 내용을 김경호의 글에서 재인용하였다(김경호, 2011, 앞의 책,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17)).

78) 와타나베는 나주 복암리 출토 백제목간의 발굴로 인해 백제목간의 형태, 기록 방식 등 고대 일본 목간의 원류로서 주목해야 한다는 연구도 제기된 바 있다(渡辺晃宏, 2010, 『日本古代都城木簡新羅木簡』, 『6~7세기 영산강유역과 백제』, pp.215-222).

첫째, 기존의 문헌 자료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당대의 풍부한 사회상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목간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문헌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 모호하거나 논쟁의 소지가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관해 명확한 근거로서 목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두 번째와 같은 범주의 자료이지만, 교과서를 만들 당시의 현재적 의식이 과도하게 투사된 목간이 선택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은 목간을 소개하는 교과서의 구성방식이다.

첫째, 山川出版社A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교과서 전체의 도입부에 목간이 소개되어 있다. 둘째, 단원별 주제에 맞는 목간을 선정하여 본문의 서술 내용을 보충하거나 그 근거자료로서 본문에 수록하였다. 이때 본문의 내용이나 캡션을 목간 사진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게 서술된 교과서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과서는 목간의 판독문이나 캡션 등을 통해 목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교과서의 본문을 상호 연관시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고 있었다. 셋째, 중단원이 끝나는 곳에 특집 코너를 마련하여 목간을 소개하고 있다.

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검토한 후 필자가 지적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간 목서의 판독에 관한 역사학계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금성사의 那尔波 목간, 좌관대식기 목간, 『논어』 목간이 이에 해당되었다. 둘째, 교과서 속에서 고대 목간을 소개하는 구성 방식이다. 『한국사』에 수록된 고대 목간 관련 서술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단 한 곳(금성사의 급별성 목간)을 제외하면 판독문을 기재한 곳이 없다. 또, 목간 자료를 서술할 때는 본문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간을 수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순한 목간 소개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이 재검토된다면 1차 사료인 목간의 가치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한국사』의 고대 목간 관련 서술의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몇 가지 더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목간의 정의를 설명하고 목간의 명칭이 통일되면 학습자들의 목간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한국과 일본의 고대 목간을 함께 수록하는 것을 제안해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목간의 성격을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양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대 목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자국의 국내 정치사를 강조하는 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사교과서를 통해 주변 나라와의 교류를 강조함으로써 한반도에 국한된 역사관이 아니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목간을 바라보는 시야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료 없이 역사 없다’⁷⁹⁾라는 말은 역사 서술에 있어서 사료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역사교과서의 서술은 역사학자들이 사료를 바탕으로 기술한다. 즉,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학자, 교사들이 지혜를 모아 구성해 가는 것이다. 이 때 집필자들이 선정한 역사적 사료를 게재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나기도 한다.⁸⁰⁾ 그러나 역사교과서는 개인의 사관을 펼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고 역사학계의 검증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지금도 역사학자들의 손에 이끌려 출토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한반도의 목간들이 많을 것으로

79) 杜維運 著·권중달 譯, 1984, 『역사연구 방법론』, 일조각, p.138.

기대한다. 이 목간들이 역사학계의 검증을 거쳐 올바른 연구 성과가 역사교과서에 반영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투고일: 2018. 4. 21.

심사개시일: 2018. 4. 29.

심사완료일: 2018. 5. 30.

80) 송상현, 2012, 「역사교육에서 역사교과서의 성격 규정 문제」, 『사회과교육』 51(2), p.32.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 교육과학기술부, 201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과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한국의 고대목간 II』.
- 국립부여박물관, 2008, 『백제목간』.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한국의 고대목간』.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고대목간』 개정판.
- 윤지훈, 2016, 『교과용도서의 교과별 어휘 표준 구축 방안(I) : 표준화 대상 어휘 선정 및 목록화(RRT 2016-1)』, 2016년 연차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재단법인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09, 『인천 계양산성 4차 발굴조사약보고서』.
-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教科書レポート』, 出版勞連, 2010~2016(7권).
- 『동아일보』 2005·6·28, 화요일, 문화 A17면.
- 『조선일보』 2005·6·28, 화요일, 사회 A09면.
- 『중앙일보』 2005·6·28, 화요일, 종합 11면.
- 국사편찬위원회, 1990, 고등학교 국정 『국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종수 외, 2013,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금성사.
- 왕현종 외, 2013,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두산동아.
- 최준채 외, 2013,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리베르스쿨.
- 도면희 외, 2013,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비상교육.
- 정재정 외, 2013,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지학사.
- 주진오 외, 2013,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천재교육.
- 이문기 외, 2011, 중학교 검정 『역사①』, 두산동아.
- 김덕수 외, 2011, 중학교 검정 『역사①』, 천재교과서.
- 정선영 외, 2011, 중학교 검정 『역사①』, 미래엔.
- 양호환 외, 2011, 중학교 검정 『역사①』, 교학사.
- 大津透 외, 고등학교 『日本史B』, 山川出版社 외 19권, 2003·2004.
- 尾藤正英 외, 고등학교 『日本史B』, 東京書籍 외 15권, 1998·1998.

直木孝次郎 외, 고등학교 『日本史B』, 実教出版 외 13권, 1997·2001.

藤井讓治 외, 중학 『歴史』, 日本文教出版, 2015·2016

杉原誠四郎 외, 중학 『歴史』, 自由社, 2015·2016.

安井俊夫他 외, 중학 『歴史』, 学び舎, 2015·2016.

김경호, 2012, 『지하의 논어, 지상의 논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고야스 노부쿠니·김석근 옮김, 2007, 『일본근대사상비판』, 역사비평사.

김한중 외, 2005,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함께.

김한중 외, 2007,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함께.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오야마 세이이치 지음, 2012, (연민수·서각수 옮김), 『일본서기와 ‘천황제’의 창출 -후지와라노 후히토의 구상-』, 동북아역사재단 번역총서32, 동북아역사재단.

양호환, 2009, 『역사교육의 이론』, 책과함께.

윤선태,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윤선태, 2011,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성시 지음·박경희 옮김, 2001, 『만들어진 고대』, 삼인.

이성제 외, 2010, 『고대 환동해 교류사 -2부·발해와 일본』, 동북아역사재단.

이승재, 2017,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 일조각.

이용현, 2006, 『한국목간기초연구』, 신서원.

이치 히로키 지음·이병호 옮김, 2014, 『아스카의 목간』, 주류성.

임상선 편역, 1990,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정선영 외, 2001,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国史大辭典編集委員會 編, 『国史大辭典』7, 吉川弘文館, 昭和 61年.

家永三郎 외 4인, 新 『日本史B』, 三省堂, 1995·2001.

橋本繁, 『韓國古代木簡의 研究』, 吉川弘文館, 2014.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編, 『長屋王邸宅と木簡』, 吉川弘文館, 1991.

渡辺晃宏, 『坪城京と木簡の世紀』, 講談社, 2001.

渡辺晃宏, 2010, 「日本古代都城木簡新羅木簡」, 『6~7세기 영산강유역과 백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大庭 脩, 『木簡—古代からのメッセ—』, 大脩館書店, 1998.

杜維運 著·권중달 驛, 1984, 『역사연구 방법론』, 일조각.

木簡学会 編, 『日本古代木簡選』, 岩波書店, 1990.

- 木簡学会 編, 『木簡から古代がみえる』, 岩波書店(株), 2010.
- 森 公章, 『長屋王家木簡の基礎的研究』, 吉川弘文館, 2000.
- 石井正敏, 「日渤交渉における渤海高句麗繼承国意識について」, 『中央大学大学院研究年報』4, 1975.
- 石井正敏, 『東アヅア世界と古代の日本』, 山川出版社, 2003.
- 市 大樹, 『飛鳥の木簡』, 中公新書, 2012.
- 李成市, 『東アヅアの王權と交易』, 青木書店, 1997.
- 李成市, 2010, 『百濟』, ‘2010 세계대백제전 국제학술회의 - 교류왕국, 대백제의 발자취를 찾아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佐藤 信, 『古代の遺跡と文字資料』, 名著刊行會, 1999.
- 佐藤 信, 『日本と渤海の古代史』, 山川出版社, 2003.
- 佐藤 信 外 編, 『日本史研究』, 山川出版社, 2008.
- 平野邦雄, 『木簡が語る古代史(上)』, 吉川弘文館, 2001.
- 平野邦雄, 『木簡が語る古代史(下)』, 吉川弘文館, 2001.
- 平川 南, 『日本の原像』, 小学館, 2008.
- 구경남, 2015, 「역사교과서 연구의 지속과 새로운 변화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22, 한국역사교육학회.
- 김한중, 2013, 「사료내용의 전달방식에 따른 고등학생의 역사이해」, 『歷史教育』125, 역사교육연구회.
- 권인한, 2012, 「韓·日 初期 木簡을 통해서 본 한문 어법의 선택적 수용과 변용」, 『日本研究』第13輯, 釜山大學校 日本研究所.
- 권인한, 2013, 「고대한국 습서 목간의 사례와 그 의미」, 『목간과 문자』11호, 한국목간학회.
- 김경호, 2011,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목간 출토 및 연구 현황」,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金慶浩, 2010,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목간 출토 및 연구 현황」, 『한국고대사연구』59, 한국고대사학회.
- 마석한, 1997, 「역사교과서와 교과서 분석」, 『역사와 실학』9, 역사실학회.
- 방지원,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구성 방식의 비교 -‘사료’와 ‘탐구’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6, 한국역사교육학회.
- 서보경, 2016,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대 한일관계 기술에 대한 분석 -2015년도 검정 통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51, 동북아역사재단.
- 송완범, 2011, 「민의 대척점에 선 「王權」의 표상: 「天皇」과 「征夷大將軍」」, 『일본사상』20, 한국일본사상학회.
- 송상현, 2012, 「역사교육에서 역사교과서의 성격 규정 문제」, 『사회과교육』51(2),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余信鎬, 2006, 「木簡이 말하는 고대사: 일본의 木簡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13, 국제언어

문학회.

- 양정현, 2014, 「역사교육에서 사실, 해석 그리고 주체와 관점 -2013년 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역사와교육』 9, 역사교육연구소.
- 양호환, 1996, 「역사교과서 서술 양식과 학생의 역사이해」, 『歷史教育』 59, 역사교육연구회.
- 윤선태, 2008, 「목간으로 본 한자문화의 수용과 변용」, 『신라문화』 3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윤선태, 2016,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사학보』 38, 신라사학회.
- 이경섭, 2015, 「일본 고대 목간의 기원 -신라·백제 목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 이경섭, 2016, 「6~7세기 한국 목간을 통해서 본 일본 목간문화의 기원」, 『신라사학보』 37, 신라사학회.
- 이성시·윤용구·김경호, 2009, 「평양 정백동364호본 출토 죽간 『논어』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4, 한국목간학회.
- 이창호, 2017, 「기호학적 관점에 따른 역사 시각자료 읽기 모형 개발」, 『역사교육연구』 27, 한국역사교육학회.
- 임기환, 2012, 「한국 고대사의 연구 성과와 역사교과서 서술의 방향」, 『역사교육연구』 16, 한국역사교육학회.
- 임상선, 2002, 「일본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발해 관련 내용 연구」, 『사회과교육』 41(2),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전덕재, 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 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목간과 문자』 3, 한국목간학회.
- 정동준, 2009, 「좌관대식기」 목간의 제도사적 의미」, 『목간과 문자』 4, 한국목간학회.
- 정선화, 2018, 「중학교 역사교과서 속 고대 목간 자료의 검토와 활용」, 『歷史教育』 145, 역사교육연구회.
- 정현숙, 2017,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서체」, 『한국 고대목간Ⅱ』,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주보돈, 2008, 「한국 목간 연구의 현황과 전망」, 『목간과 문자』 창간호, 한국목간학회.
- 지모선, 2009, 「역사 교과서 제2차 세계대전 삽화 자료 비교 분석 -한·중·일·미·독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9, 한국역사교육학회.
- 최상훈, 2000,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와 역사학습목표의 설정방안」, 『歷史教育』 73, 역사교육연구회.
- 하일식, 2011, 「『중학교 역사』의 통일신라·발해 서술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64, 한국고대사학회.
- 三上喜孝, 2008, 「일본 고대 목간의 계보: 한국 출토 목간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목간과 문자』 창간호, 한국목간학회.
- 橋本繁, 「金海出土『論語』木簡について」, 『韓国出土木簡の世界』, 朝鮮文化研究所, 2008.
- 平川 南, 2009, 「백제 왕도 출토 『연공(連公)』 목간 -한국 부여 쌍북리 유적 1998년 출토 부찰」,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연구보고』 제153집.

<Abstract>

The use of ancient wooden tablets in 『Korean history』 textbooks
—On the Comparison with 『Japanese history B』 textbooks—

Jeong, Sun-hwa

Starting with the 2007 revision of the curriculum, middle school history (issued in 2011), the school considered the description of the ancient wooden tablets contained in the revised curriculum (issued in 2013) of high school year. In March this year, Japan's history textbooks were published after reviewing descriptions of the wooden tablets of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In response, he examined the history textbook of Japan as a comparative example to examine whether the description of the wooden tablets in the high school history textbook reflects the latest achievements of the history studies in the right place. From the 1990s, which was earlier than Korea, Japan has included the ancient wooden tablets in its history textbooks.

『Korean history』 textbooks contain more wooden tablets than Japanese textbooks. However, there we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 method of writing wooden tablets and the method of selecting them. While Japan clearly described the value of the wooden tablets as the primary historical materials in its history textbooks, it can be seen that Korean history textbooks contain many descriptions that are not limited to the achievements of history studies. The description of the wooden tablets should clearly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mary data and accurately reflect the achievements of the history studies. From a perspective, the descriptive features of the ancient wooden tablets in the 『Korean history』 textbook were reviewed to suggest problems and improvements.

▶ Key words: history textbooks,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Korean history』 textbooks, 『Japanese history B』 textbooks, ancient wooden tablet, primary historical materials, learning materials